

다니엘

호세아

다니엘, 호세아

2024년 7월 12일 초판 발행

펴낸이 강요섭 김광욱 이영란 정한조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표지 이지영

교정 김미선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새벽묵상

다니엘

호세아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다니엘





차례

다니엘 1:1-21

다니엘 2:1-24

다니엘 2:25-49

다니엘 3:1-30

다니엘 4:1-37

다니엘 5:1-31

다니엘 6:1-28

다니엘 7:1-28

다니엘 8:1-27


다니엘 9:1-27

다니엘 10:1-21

다니엘 11:1-19

다니엘 11:20-45

다니엘 12:1-13



1

뜻을 정하여

다니엘 1:1-21

1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삼 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3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삼 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6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7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0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나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
 라 하니라 11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
 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
 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4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
 흘 동안 시험하더니 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7 하나님께서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8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왔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19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
 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
 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20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
 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1 다
 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에 대한 개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구약시대 묵시(默示: 숨은 것을 드러냄, 계시) 문
 헌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묵시문헌의 목적은 미래의 비밀을 밝
 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דָּנִיֵּאל)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벌과 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지만, 의인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며 살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일평생 잊지 않았기 때문에 적 진영 한복판인 바벨론 수도,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뉘는데 1-6장은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7-12장까지는 예언적 계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2.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3.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다(1-2)

다니엘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B.C.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해온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파라오인 느고가 세운 왕으로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친 애굽 정책을 고집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샀습니다. 결국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고(대하 36:6-7), 이때 약 16살 소년인 다니엘은 유다의 청년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간 뒤, 그곳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가 섬기는 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상이 따로 없으니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성전 기물 중 일부를 자국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상대로 승리했다고 이스라엘과 자국에 공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바벨론이 전쟁에서 나를 상대

로 승리해서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전리품으로 성전 기물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내가 유다 왕과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바벨론에게 넘겨준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성전 기물을 가져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모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화려했던 극치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현대 교회는 큰 교회, 수많은 군중, 웅장한 음악 등을 추구합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메가처치(megachurch, 초대형교회)” 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메가처치를 교회 성장의 모델로 삼아서, 2000년부터 한국판 메가처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 메가처치의 대명사로 불렸던 수정교회(Crystal Cathedral)는 파산했습니다. 미국 일부 대형교회 유명 목회자들이 각종 추문에 휩싸여 몰락했습니다. 한국판 메가처치라 불리는 일부 대형교회에서 벌어지는 성 추문, 공금횡령, 비상식적인 세습, 편법과 불법 등 목회자 관련 범죄 기사들이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닌 “악과 부패”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린 교회를 향한 엄중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고통(3-7)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한 후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할 목적으로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정책은 조선인은 일본 제국의 신민이므로, 일본 황제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인에게도 황국신민의 의무라는 징병, 징용을 강제했으며, 신사참배와 창씨개명(創氏改名) 그리고 조선교육령을 실시했습니다.

바벨론은 식민지를 자국화하기 위해 식민지 동화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일환으로 식민지의 유능한 청년들을 본국으로 잡아와서 창씨개명과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국문화에 동화시키려 했습니다. 3-5절에 의하면, 바벨론은 고등교육을 받은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 출신 중에서 엄선한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궁궐에서 갈대아 언어와 학문을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배우게 될 갈대아 학문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의미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강제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왕궁에 기거하면서 세계 최고의 문명을 석학들에게 직접 배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 온 이들이 창씨개명하도록 했습니다.

(7)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 * 다니엘(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 벨드사살(바벨론의 최고신인 벨이 총애하는 자)
- * 하나냐(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 사드락(메소포타미아 월신(月神)을 경배하는 자)
- * 미사엘(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 메삭(포도주의 여신에게 몸 바친 자)
- * 아사랴(여호와는 나의 도우미시다) : 아벳느고(바벨론 신 중 하나인 느고의 아들)

경건한 유대인의 이름을 이방인의 이름으로,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름을 이방 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름으로, 심지어 이방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강제 개명당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과 그 동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창씨개명을 집단으로 거부했을까요?

다니엘의 결단(8-13)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자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에 굴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바라던 대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바벨론 왕이 제 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아무리 남유다의 귀족 출신 자제라고 해도 당시 바벨론 왕궁에서 먹는 진미와 포도주는 일평생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최고의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산해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궁의 음식은 먼저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친 후에 사람이 먹었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이로 인해 곧 목숨이 위험해질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성결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9)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기로 결단하며, 죽음을 불사하고 실천에 옮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관리하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와 긍휼로 다니엘을 보살펴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이상 성전이라고 여기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멀리 이국 땅인 바

벨론 한가운데 최고 권력자의 궁궐에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자 바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신을 숭배하는 이름으로 강제로 창씨개명 되고 궁궐에서 세계 최고의 문명인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을 통해서, 그리고 감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14-21)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산해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어도, 산해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7-2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는 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절은 다음과 같이 마칩니다.

(21)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은 바사(페르시아) 왕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기 시작해서 벨사살 왕,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진 다리오 왕을 거쳐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나라

가 바뀌었음에도 4명의 왕을 70년간 섬겼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해에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포로인 유대인들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처럼 유대인의 포로귀환 칙령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사야 44:28-45:7에 의하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택하시는 분임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같이 세상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에스겔서는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6절에 의하면 함께 왕궁에 들어온 무리 중 다니엘과 3명의

동료만 구별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동료들로부터 손가락질받았을 것입니다. “창씨개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대세를 따르지, 너희만 뭐 그리 잘났냐”면서, “자칫하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가족으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악으로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우상에 바친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손해 볼 각오를 하고, 설사 손해를 볼지언정 심판자이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소망하며 세상과 구별된 시간으로 가득 채워가는 복된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삶은 험난했습니다. 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짓밟혔고, 자신은 왕과 함께 적국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조차도 적군에 의해 이방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창씨개명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동료들부터 오해를 받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 왕과 바사 왕을 모시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적진에서 이방 나라의 왕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전도했고, 이로 인해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귀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은 셈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판 중에 임할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복된 소식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하루로 시작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의 기물이 바벨론의 신전 보물 창고에 옮겨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습니까?
2. 일제 강점기 창씨개명은 친일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3.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로 인해 기독교가 분열되었고, 아직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다른 소년들과 어떻게 화합했을까요?
4. 다니엘이 일평생 잊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5.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과 다니엘 일행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다니엘 2:1-24

1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이 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2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 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3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4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5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6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7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8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9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10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
 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
 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묻은
 자가 없었나이다 11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
 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12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13 왕의 명령이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
 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14 그 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
 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로 15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16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
 라 17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
 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9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
 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
 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
 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 그는 깊고 은
 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
 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
 라 24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1-13)

주전 605년 남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시기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8년 후인 주전 597년에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예언 활동을 한 시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난 30세였으니(겔 1:1-3) 다니엘은 에스겔 선지자와 나이가 비슷하였으며 동시대에 같은 나라에서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다른 소년들처럼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3년 교육과정으로 수료하고 왕궁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사를 받았았습니다. 다니엘서에는 꿈 해석과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계기가 되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직무를 맡게 되었고, 모든 지혜자의

리더가 되었습니다(단 2:49). 마치 과거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흡사합니다.

다니엘 2장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라의 요직에 올랐다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며 절대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과 그의 지혜자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일과 그 나라의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 포로 소년에게 들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1)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이 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원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본문 1절의 느부갓네살 통치 2년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가 다니엘이 다른 소년들과 함께 3년 교육과정을 마친 해입니다. 연도 표기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연도 표기법은 통치 원년, 1년, 2년으로 하나씩 증가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연대 표기의 차이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나라별 건물의 층수 표기 차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 건물의 2층을 영국에서는 첫 번째 층(1st floor), 1층으로 표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층은 영국에서는 지상층(Ground floor, G), 영(zero)층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신비롭게도 다니엘이 왕궁의 교육과정 3년을 수료한 후 어느 시점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다. 그 꿈을 꾸 왕은 그 꿈으로 번민하여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2)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 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불렀지만, 자신이 꾸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과거 애굽 왕 바로가 기괴한 꿈으로 번민에 빠져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꿈 해석을 하라고 했을 때는 자신이 꾸 꿈인 일곱 암소와 일곱 이삭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꾸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꿈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꿈의 내용을 어렵듯이 기억해 꿈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괴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을 통해 세상의 어느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참 지혜임과 바벨론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갈대아의 술사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4)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은 꿈을 알려달라는 술사들에게 노여워하며 꿈과 그 해석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반대로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면 상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갈대아의 술사들은 아무리 큰 상이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꿈의 내용을 듣지 않고 해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재차 왕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전보다 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12)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은 극한 노여움으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몰살시키라는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아무리 왕정 시대라지만 상식에 벗어난 왕의 행동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할 대상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14-24)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궁에서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그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15)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나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10대 소년 다니엘이 어떤 지혜와 용기로 근위대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나”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은 무분별하고 당돌한 10대 소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언행을 16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6)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의 친구 세명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알리고 그들에게 요청한 일이 18절에 나옵니다.

(18)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꿈 해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으로 그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기에 이번 일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한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 중 환상으로 은밀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보았다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20)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고백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처럼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찬송하였습니다.

(2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때와 계절’은 사시사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와

계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때와 정해진 기간'입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가 의미하는 바는 바벨론의 왕을 비롯한 세상 나라의 왕들의 때와 정해진 기간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와 같은 뜻입니다. 세상의 왕들을 폐하고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각 나라의 국민들과 주변 나라들의 힘이 작용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잘 시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때와 계절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말씀의 본질로 회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자가 되고 총명한 자가 되십시오.

다니엘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밀한 일을 알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23절로 마무리합니다.

(23)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십시오. 오늘 하루

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오늘 새벽기도회 개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끌려간 10대 소년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지 못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 역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달려 있사오니 한국교회와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 난감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번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 다니엘이 왕의 몰살 명령을 듣고 근위대장에게 했던 말, 이후 왕에게 찾아가 시간을 요청한 것, 이후 자신의 세 친구를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한 것, 그리고 자신이 기도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던 일련의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후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다?
5.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바벨론에서 다니엘

다니엘 2:25-49

25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26 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곧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27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그가 느부갓네살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29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 주려 하심이니이다 31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33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열마는 쇠요 열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
 계에 가득하였나이다 36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
 에 아뢰리이다 37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
 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
 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39 왕을 뒤이어 왕
 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
 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41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
 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43 왕
 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궤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
 으리이다 44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나라를 세우시리
 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
 원히 설 것이라 45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
 과 은과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46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

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
다 48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
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꿈의 내용 진술(25-35)

느부갓네살 원년,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2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습득
하는 3년의 시간을 보낸 후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2장 전반부(1-24)는 느부갓네살이 꾸는 꿈
으로 인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소개하며 시작됩
니다. 왕은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불러 자신이 꾸
는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보일 것을 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대답하며 왕의 불신과 진노를 일으
켰습니다. 곧장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어명이 내려
졌고, 이를 알게 된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잠시 만
류하고, 기도 중에 깨달음을 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
늘 본문 2장 후반부(25-49)는 다니엘이 전면으로 나서는 것으
로 시작됩니다.

(25-26)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곧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근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의 말에 따라 왕을 만류했고, 왕에게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보아 그를 매우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무고한 지혜자들을 죽이는 일에 대한 편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급히’ 왕 앞에 들어가 다니엘을 소개했다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왕을 만류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 왕의 질문에 대한 다니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27-28)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곧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은 꿈의 내용에 대한 진술과 해석에 앞서 그에 대한 주체가 하나님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했는데, 이는 위험천만한 언사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전

쟁에 패해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 신의 대리자 격인 왕 앞에서 자신의 신을 높여 하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곧이어 왕이 꿈에 본 현상은 개인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실 일에 관한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전하는 것입니다. 꿈 자체와 해석의 기원을 다시 한번 언급(29-30절)한 후, 꿈 내용에 대해 진술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면(31-33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33)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느부갓네살이 침묵해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꿈 내용에 대해 다니엘이 똑똑히 말했습니다. 먼저 왕이 큰 두려움을 느낄 만큼 크고 번쩍이는 신상을 보았는데, 그것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 다섯 가지 성분으로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어 꿈의 두 번째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4-35)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돌이 나와 웅장한 신상의 가장 약한 부분인 발을 쳐서 삼시간에 무너뜨려 흩어버렸고, 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진술한 꿈에 대한 해석이 이어집니다.

꿈의 내용 해석(36-45)

(36)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꿈의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했음을 확인한 후, 해석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내가 아뢰리이다’로 번역된 원어 אָמַר(아마르)은 1인칭 복수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새번역성경은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36, 새번역)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앞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 이심을 직접 고백하였고,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7-38)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다니엘은 해석의 첫 부분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느부갓네살을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어 그가 가진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왕께 맡기셨고, 꿈에서 본 그 금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하 내용(39-43절)에서 은, 놋, 쇠, 흙으로 비유된 열강이 나타날 것임을 해석하며, 마지막에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돌에 대한 해석을 전합니다.

(44-45)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훗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과 그 나라는 영원하여 그 누구에게도 국권이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그가 전한 꿈과 해석은 분명하여 장차 역사로 구현될 것임을 강조하며 대답을 마칩니다.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먼저 그의 행동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반응(46-49)

(46)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꿈의 내용을 포로 소년 다니엘이 알고 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분명한 해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왕이 엎드려 절하는 대상은 신 또는 신적 존재뿐이었는데, 그는 곧장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신하들에게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전해 줄 것을 명했습니다. 여기에 ‘예물’, ‘향품’, ‘주게 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각각 מנחה, תענית, נתת(원형: נתן)인데 이는 모두 제사 용어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걸맞은 고백이 이어집니다.

(47)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찮게 여긴, 아니 관심조차 없었던 하나님을 모든 신의 신이자, 모든 왕의 주재로 인정합니다.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히브리식: 벨)도 그 아래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을 꼽자면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여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포로 소년으로 인해 바벨론 왕이 이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어진 결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분에 변화가 생깁니다.

(48-49)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10대 소년 다니엘은 한순간에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 다음가는 직위로 높여졌고,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청에 따라 그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바벨론 지방을 통치하는 관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힘써 기도(간구)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 왕을 번민하게 한 꿈의 내용과 그에 담긴 뜻을 알게 되었

습니다. 그는 곧장 당대 최고 권력자 앞으로 나갔고, 서슴없이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전하는 동시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담대히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구별된 사람이며, 하나님을 신들의 신으로 인정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신실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증명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로 회향하기를 힘쓸 때, 우리 모두는 오늘 하루만큼이나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왕이신 하나님,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구별된 사람의 모습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기도의 열심과 세상에 담대히 구별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의 본질 앞으로 회향함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오늘을 보낼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바벨론의 포로였던 청년 다니엘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을지 묵상해 봅시다.
2.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는 다니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3. 다니엘이 풀어내는 꿈의 내용과 해석에 대한 진술을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해 봅시다.
4.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것을 해석할 때 느부갓네살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1-30

1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육십 규빗이요 너비는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2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3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4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5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6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7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8 그 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아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9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10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

상에게 절할 것이라 11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3 느부갓네살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9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20 군대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 21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겹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22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든 사

람을 태워 죽였고 23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24 그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기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6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27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겹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탄 냄새도 없었더라 28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30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주전 605년 남유다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기에, 10대 소년 이었던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여

러 환상과 꿈을 통해 제국들의 멸망을 보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온 열방의 왕이며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에는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드러납니다.

우상숭배냐? 죽음이나?(1-18)

(1-2)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육십 규빗이요 너비는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자신의 업적과 자신이 섬기는 신을 기념하기 위해 모든 지도자가 신상에 절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공언합니다(6절). 따라서 그 어느 누구라도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으며, 만약 따르지 않으려면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8) 그 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아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8절 ‘참소하다’라는 표현은 ‘씹어 먹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고발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왕에게 임명을 받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유대인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질투하였고, 그들을 참소했습니다. 즉 그들을 씹어 먹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질투하여 넘어뜨리기 위해 참소하고 씹어 먹으려는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담담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참으로 두렵고 억울해서 분통이 터질 것만 같은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3-14)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노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에게 데려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들을 불러 먼저 이 일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그들은 왕이 직접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중요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왕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15a)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미 지나간 일은 묻지 않을 테니 이제라도 엎드려 금 신상에 절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당시에 풀무는 쇠로 만들어졌으며 벌집 모양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측면에는 통풍을 위한 문과 둥근 지붕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풀무의 안은 뜨거웠지만, 사람들이 안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에 풀무가 특별히 형벌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풀무가 존재한 것은 형벌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신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b)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은 다른 신의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자신의 힘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분명한 도전입니다.

지금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1,000도가 넘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어 죽일 수 있다는 왕의 말에 보통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왕으로부터 얻었습니다. 내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어렵게 얻은 이 지위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더욱 끼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적당히 타협해서 상황을 모면하자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고민 없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18)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의 대답은 참으로 대담해서 놀랍습니다. 왕의 제안은 너무도 확실한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히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충분히 견져 낼 수 있는 분이 라고 말하며, 18절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분명한 이 고백을 보며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학교와 군대, 직장과 가정, 인간관계 등에서 신앙적인 시험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졸업했던 고등학교는 천도교 재단의 학교라 학교 안에서 일체의 종교적인 모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저와 3명의 친구가 매일 야간 자율 학습 후에 학교 뒷동산에 모여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들에게 들켜서 이름이 적히기도 하고 학교 명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참 순수하게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하는 모임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여러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시험의 순간과 맞닥뜨릴 때 과연 어느 편에서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19-30)

(19-20)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왕은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선심을 썼습니다. 하지만 전혀 여지를 남기지 않고 거절하는 세 친구의 대답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당히 불쾌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13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보다 더 이성을 잃어 왕의 감정이 격해졌음을 나타냅니다. 평소보다 칠 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준비하라고 한 것으로 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풀무의 온도를 ‘칠 배나 뜨겁게’ 했다는 것은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하나의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풀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풀무의 온도는 섭씨 900도에서 1,100도 사이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무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 그 아래에서 바람을 불어넣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로 섭씨 1,500도 이상 온도를 높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풀무불을 칠 배나 뜨겁게 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를 최대한 뜨겁게 달구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24-25) 그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풀무불 안에서는 네 사람이 걸어 다녔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국 풀무불 속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들은 맹렬히 타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17절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불이 ‘해하지 못하였고’, 불에 ‘그을리지 아니하였으며’, 옷의 색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냄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9)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나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3장 말씀의 전반부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어느 누구라도 풀무불에 넣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경솔

히 말하는 자들은 그 몸을 쪼개어 죽이라며 완전히 다른 태도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지위 박탈은 물론이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들을 참소했던, 즉 그들을 씹어 먹으려고 했던 갈대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장의 마지막 말씀인 30절에서는 오히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고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3장은 분명히 밝히며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우리들도 이방 나라에서 믿음의 시험을 받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동일한 시험과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씹어 먹으려고 달려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이 금 신상 앞에 절하더라도 우리는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풀무불

에 던져 버리겠다는 왕의 협박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견져내기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더라도 우리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은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금 신상 앞으로 와서 절하라고 시험하며 손짓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 그렇게 와서 절하며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세상과 싸우려고 하나며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채 외톨이로, 왕따로 살아가야 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우렁찬 목소리를 내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하지만,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만 가려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풀무불에 들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요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절대적인 힘으로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2. 지금 당신에게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믿음에 반하는 세상의 압력과 시험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3.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당신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4.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을 통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당신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니엘 4:1-37

1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3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4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5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6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7 그 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못하였느니라 8 그 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못하였느니라 9 그 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못하였느니라 10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11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12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13
 내가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4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5 그
 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석와 늦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
 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16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
 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내리라 17 이는 순찰자들
 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
 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
 느니라 18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
 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
 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
 에 있음이라 19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
 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
 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20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
 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21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22 왕이여 이 나
 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

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23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때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24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25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6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7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28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30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32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 바로 그 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34 그 기한이

차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 계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6 그 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해졌느니라 37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 4장에는 앞선 2장에 이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장의 꿈이 미래의 나라들에 대해 다루었다면, 4장의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의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1-18)

본문의 첫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꿈을 꾸고 다니엘을 통해 해석을 받았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깨닫지 못하다가 긴 고통스런 시간을 겪고 난 이후에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과거

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4장 전체의 서론 및 요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마지막 34-37절까지 나오는 찬양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수미쌍관, 즉 처음과 끝이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형식입니다.

(1-3)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며,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또한 체험을 통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꾸었던 꿈의 내용과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던 과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4-5)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느부갓네살이 집과 궁에서 편히 있을 때 한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오히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삶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면, 그럴 때 더 주의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5절에서 왕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번민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찾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부탁하지만, 역시 해석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명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 내용을 10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0)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땅의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아주 크고 높아서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가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와 통치력,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그 나무를 다루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13) 내가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여기 ‘순찰자’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깨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지키는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로 해석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며 짐승과 새들도 쫓으라고 말합니다. 나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푼 가운데 두어서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뉘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쇠와 놋줄로 동이고’라는 표현은 장차 그가 정신병자처럼 될 암담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꿈 내용을 다 말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9-33절까지 다니엘의 해석이 소개됩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19-33)

(19)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며 번민하여 꿈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재촉하자 다니엘은 당사자가 기분 나쁠, 그리고 자기에게

피해가 올지도 모르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꿈 해석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보다 더 권위가 높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지 돌아보게 됩니다.

20-27절까지 다니엘은 꿈에 대해 하나님께 받은 해석을 왕에게 말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나오는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견고해지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권세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이후에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 같은 생활을 7년 동안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7절에서 다니엘은 그러므로 왕에게 회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열두 달이 지나고 그 꿈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29)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느부갓네살은 자기만족과 권세에 취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나오는 왕궁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공중 정원으로 추정됩니다. 그곳에서 웅장한 바벨론 도성의 모든 곳이 한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 성을 건설했음을 흠족해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1장에서 선지자가 애굽에 대해서 예언할 때 백향목으로 비유하며 교만이 하늘 높이 솟았다고 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역시 애굽을 무너뜨리고는 자신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세입니다. 인간은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약간의 힘만 가지게 되어도 인간은 쉽게 교만해진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 교만한 왕에게 마지막 경고가 한 번 더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은 항체가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몸에 항체가 있는 사람은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넉넉히 이겨 건강을 유지하지만, 항체가 없는 사람은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지각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지각이 없으면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1-32)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경고와 즉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왕의 자리에서 추방됩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는 쫓겨나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손톱과 머리카락이 길어져서 흉물스럽게 지내며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말 그대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다 해도, 자기만족과 성취 속에서 산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시면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 징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가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찬양(34-37)

(34)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왕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왕의 조서 곧 그의 간증 고백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7)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왕들까지도 세우시며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우리 역시 삶의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설 것인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결과는 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겸손히 낮아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이 통치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움켜쥔 손을 펴서 필요한 것

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그 나라를 위해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필요한 사람, 생명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때로는 회개의 경고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우리의 손을 펴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오늘날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힘과 권세로 억누르며 살아간 것처럼, 혹시 우리도 때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자기 성취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현재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 때로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으며 함께 지어져 가는 복된 날로 일구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열두 달 동안이나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즉각 순종하고 있습니까?
2. 느부갓네살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지난 인생 동안 징계를 통해 회개하였던 경험이 있었다면 다시금 떠올려보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3. 다니엘은 두려움의 존재일 수 있는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내 주변에 진리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4.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나의 손을 펴서 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6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 5:1-31

1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 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던라 3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5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축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친지라 7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8 그 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 주지 못하는지라 9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10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

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
 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11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
 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
 으니 12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
 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13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
 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
 손 중의 그 다니엘이나 14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15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
 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
 였느니라 16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풀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네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
 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1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18 왕이여 지
 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
 광과 위엄을 주셨고 19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
 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20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

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 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22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 이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 26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27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28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29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30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때에 다리오는 육십이 세였더라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1-9)

성경 다니엘은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은 세 부분입니다. 1장에서 10대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부분과 3장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는 절하지 않겠다는 부분, 그리고 6장의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여러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기에 더욱 어렵습니다. 어린이용 성경 그림에 사자 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청년의 모습으로 그리곤 하는데, 사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도 넘었을 때였습니다. 다니엘서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이리합니다.

- ① 1장 : 포로 됨과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B.C. 605-604년, 다니엘 나이 약 15세)
- ② 2-3장 :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1(B.C. 586년경, 약 34세경)
- ③ 4장 :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2(B.C. 570년경, 약 50세경)
- ④ 7장 : 벨사살 왕 때, 네 짐승 환상_사자, 곰, 표범, 열 뿔 가진 짐승(B.C. 556년, 약 64세)
- ⑤ 8장 : 벨사살 왕 때, 숫양과 숫염소 환상(B.C. 554년, 약 66세)
- ⑥ 5장 : 벨사살 왕 때, 벽에 쓰인 글씨(B.C. 539년, 약 81세)
- ⑦ 9장 : 다리오 왕 때, 70주 환상(B.C. 539년, 약 81세)
- ⑧ 6장 : 다리오 왕 때, 왕의 칙령과 사자 굴(B.C. 539-8년, 약 81-2세)
- ⑨ 10-12장 :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환상(B.C. 536년, 약 84세)

다니엘 1-6장은 ‘사건 중심’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7-12장은 ‘환상 중심’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7장과 8장도 벨사살 왕 때의 일인데, 그때는 그의 치세 초기의 일이고, 본문은 그의 통치 마지막 날,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1-9절은 벨사살 왕이 베푼 잔치에서 있었던 일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어찌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바른 것을 실천하며 참되게 살려 애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해 당신의 백성일지라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품어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1)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 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어제 4장에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꾸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이나 들판에서 소처럼 불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후, 다니엘의 나이 약 81세 때의 일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메대·바사(메디아·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대부분 점령하고, 이제 바벨론 도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포위하여 바벨론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성은 외적의 침입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철옹성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벽이 워낙 두터워서 4필의 말이 이끄는 전차가 양방향으로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두께였습니다. 그 성을 어떻게 지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불러다 놓고 성대한 술판을 벌일 수 있었는지 의아합니다. 벨사살 왕은 포위당하여 불안해하는 성내 시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파티를 벌였을 것입니다. 바벨론 도성은 그 어떤 외적도 침입하여 무너뜨릴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를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흥청망청하였을 것입니다. 1-4절에 ‘술을 마시니라’, ‘술을 마실 때에’, ‘마시려 함이었더라’, ‘마시더라’, ‘술을 마시고는’ 등 모두 ‘마시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소위 ‘부어라, 마셔라’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벨사살 왕은 내리지 말아야 할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2-3)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던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즉 전쟁의 승리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상대방이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패전국의 신전에 있는 집기와 그릇은 중요한 전리품이었습니다. 취기가 잔뜩 오른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 은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자신은 물론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이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금과 은, 구리, 쇠, 나무, 돌 등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축매제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가장 먼저 판단력, 분별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도 같고, 술에 취하면 결코 중요한 말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내린 결정이 곧 자신의 목을 죄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것을 왕이 보고서 보인 반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6)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친지라

그 손가락을 보기 전까지는 왁자지껄하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을 본 왕은 사색이 되었
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마치 『춘향전』에서 큰
잔치를 벌였던 탐관오리 변 사또가 이몽룡이 외치는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소리를 들은 것과도 같았습니다.

다급해진 벨사살 왕은 급히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7)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벨사살 왕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목소리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다급함을 말합니
다. 그리고 벽의 글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의 상을 내리
겠다고 했습니다. 자주색 옷과 금 사슬(목걸이), 셋째 통치자입
니다. ‘자주색 옷’은 왕족만 입는 옷이었고, 금 사슬은 왕의 목
걸이를 의미합니다. 그 목걸이는 아주 특별한 공적을 세운 사람
에게 걸어 주기도 했습니다. ‘셋째 통치자’는 바벨론 제국 서열
3위로 세워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전 서열 3

위는 대법원장이고, 대통령권한대행 순서는 1순위가 국무총리, 2순위가 기획재정부장관, 3순위가 교육부 장관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제국 내의 최고의 지성인, 석학 중 그 누구도 그 글을 읽고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유다 백성은 영적인 간음 외에 성적으로도 타락한 모습까지 보여 주었습니다. 긍휼을 베풀며 참아오셨던 하나님은 이제 징계를 결심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더 이상 방관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단기간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한편으로 교훈해 주신 끝에 내리시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징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심 끝에 내리신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끝에 내리신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하는 다니엘(10-31)

10-31절은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하는 다니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벽에 쓰인 글로 인해 벨사살 왕의 번민이 깊어지고 있을 때 왕비가 한 사람을 천거했습니다.

(12)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왕비는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의 영이 있다고 말하며,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종교인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며 추천했습니다. 계속해서 왕비는 다니엘은 틀림없이 ‘은밀한 말’과 ‘의문’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말’은 ‘판독할 수 없는 단어’를 뜻하고, ‘의문’은 ‘매듭’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알 수 없는 단어나 문장이 꼬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자로 말씀드리면 문장이 갑골문자로 쓰여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말로 하면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문장과도 같습니다. 당시에 80세가 넘는 다니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관직에서 은퇴하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그것도 이방인이 다시 부름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도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해 주면 동일하게 자주색 옷을 입혀 주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 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자신은 보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18-23절까지 여섯 절에 걸쳐서 벨사살 왕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특히 18-21절 동사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며, 영광과 위엄도 주셨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소처럼 풀을 뜯는 자리까지 낮추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과 그의 나라,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그 어떤 재앙도 자신들을 덮치지 않을 것이요, 전란이나 기근 또한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계셨고 계속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불로 상징되는 심판을 단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2-23)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삶은 느부갓네살 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벨사살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권력을 지녔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모두 하나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석회벽에 쓰인 글을 이렇게 읽고 해석하였습니다.

(25-28)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벽에 쓰인 글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문자적 의미는 ‘세어지고, 세어지며, 저울에 달려, 그리고 쪼개지다’입니다. 특히 ‘메네’는 두 번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한 번만 계산해 본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계산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겔_저울에 달아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칭(天秤)의 한쪽에는 무게추를 올려놓고, 또 한쪽에는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올려놓으니, 하나님의 무게추 쪽으로 천칭이 ‘쑥’하고 기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29-31)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나라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때에 다리오는 육십이 세였더라

벨사살 왕은 다니엘로부터 나라가 망한다는 해석을 듣고서도, 본래 약속했던 자주색 옷과 금 사슬,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벨사살 왕은 물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안에는 1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은 고대 건축물 중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 정원’으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역사가들은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바벨론 성이 어떻게 함락당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장군이 이끄는 메대·바사(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은 성안으로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었는데, 유프라테스강의 한 지류가 바벨론 성 아래로 흘렀습니다. 그 강물을 다른 쪽으로 흐르게 하고서, 그 알아진 강 길을 따라서 성으로 들어갔고, 성안의 내부 첩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군사적 충돌이 없이 왕궁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마시고 있는 벨사살 왕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날이 B.C. 539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국의 멸망은 곧 세상의 멸망을 뜻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축소하면 우리 가정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향해 내밀어야 하는 손으로,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을 술잔으로 만들어 욕망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손을 욕망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향한다는 것은 곧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욕망의 손을 거두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살았던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대·바사 연합군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도 잔치를 벌일 만큼 국가의 안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야 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술잔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나라의 무게를 다 달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제국을 무겁게 여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며 새털처럼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저울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가볍지 않도록 날마다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향해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벨사살 왕은 국가적인 위기에도 잔치(술판)를 벌였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나태함과 방탕함을 버리고 신발 끈을 다시 매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2. 다니엘은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과거(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등)와 지금 중 언제가 더 신실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3.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의 무계를 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신앙의 무계도 달고 계신다면, 무계를 더하기 위해서 고치고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4. 방탕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7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6:1-28

1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백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5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6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7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나이다 8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9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

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1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2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13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14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5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16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7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귀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18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19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20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22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

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었으며 또 왕이여 나는 왕
 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
 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
 라 24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25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
 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
 지어다 26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
 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 그는 구원도 하시며 견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
 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8 이 다니엘
 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주전 605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 10대 소년
 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주전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는데 10대 소년이
 었던 다니엘은 시간이 흘러 80세가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음모(1-9)

본문 1-9절은 벨사살에서 다리오로 정권이 교체되며 자기의 뜻대로 관리들을 세우게 됩니다.

(1-2)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백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던라

다리오는 고관 백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 자신의 직무를 보게 하였는데 다니엘은 세 명의 총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총명함을 인정받았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 관리로 등용되었습니다. 다리오가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3절이 증거합니다.

(3)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마음이 민첩하며 다른 총리와 고관들보다 뛰어난 자였습니다. ‘민첩하다’는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고 비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리오는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난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 하였는데, 이 계획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한 것입니다. 이들의 시기

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4-5)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의 삶에서 흠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근거나 허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삶에서 하나님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 다니엘을 넘어뜨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7-9)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니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삼십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에 넣는 법을 세우고, 이 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서에 왕의 도장까지 찍습니다. 이들이 세운 왕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은 상충됩니다. 왕의 법은 30일 동안 자신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시행된 후 다니엘의 모습을 10절이 증거합니다.

사자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10-18)

(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분명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며 이는 열왕기상 8:48-50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에 근거를 둔 기도입니다.

(왕상 8:48-50)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으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 시대의 아름답던 성전은 무너졌지만 미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믿으며 다니엘은 기도하였고, 주께 범죄하여 포로로 잡힌 지금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분명 사자 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통이 다가올 것을 알면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니엘이 육신적으로만 장성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역시 매우 장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담대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음모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 포로로 잡혀 온 소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기도 하며 전에 하던 대로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이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도록 이끌어 준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기도와 말씀을 묵

상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함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16)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스는 다니엘이 사자 굴에 빠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했지만 자신이 내린 법을 번복할 수 없었기에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사자 굴 속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다리오스는 사자 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구출과 참소자들의 죽음(19-24)

19-24절은 다니엘의 구출과 음모에 빠뜨린 자들의 죽음이 나 타납니다.

(22)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리오의 염려와는 반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자 굴 속에서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하나님과 다리오 앞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확인한 다리오는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과 가족들까지 함께 사자 굴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다니엘은 아무런 흠이 없이 돌아왔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르던 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25-28)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출된 다니엘을 직접 본 다리오의 조서와 함께 막을 내립니다.

(26-27)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자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른 이들

이 바라볼 때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고, 삶의 모습을 통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살아 계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살아 계시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본문 28절에서 증거하며 오늘 본문은 막을 내립니다.

(28)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다리오와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였습니다. 형통하다는 ‘번창하고 성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형통함은 총리라는 권력을 얻게 되는 세상의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시기에 권력과 물질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고난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을 펼쳐주셔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

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혹자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손을 펴신 것처럼 모든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손을 펼치사 한국교회에 형통함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형통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소년이었던 다니엘을 노년까지 인도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믿음은 한 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나오게 됨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동행하셔서 형통함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동행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니엘을 시기하며 질투했던 고관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묵상해 봅시다.
2. 하나님을 따랐던 다니엘은 구원받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르던 고관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의 삶에서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 7:1-28

1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 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9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

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 불이 강처
 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
 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퍼 놓였더라 11 그 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
 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
 며 12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
 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
 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
 지 아니할 것이니라 15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리 속의 환
 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16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
 을 알려 주며 이르되 17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18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
 원하고 영원하리라 19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
 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놋이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
 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21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2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

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24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8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화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나아가서, 물으매(1, 15-16)

(1)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15-16)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리 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여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 주며 이르되

B.C. 556년 약 64세의 다니엘이 꿈을 꾸니다.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습니다. 그 환상이 그에게 근심과 번민을 줍니다. 근심한다는 말은 ‘찢리는 것처럼 슬프다’ 것이고, 번민하게 한다는

것은 ‘떨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2장(B.C. 602년경, 약 18세경)과 4장(B.C. 570년경, 약 50세경)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입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보다 꿈과 환상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또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어야만’ 근심과 번민을 멈출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16절). 오늘, 우리도 다니엘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묵상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다니엘의 꿈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짐승 넷(2-7)

(2-7)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는 구약성경에서 혼돈을 상징했습니다(시 93:3-4; 사 17:12). 혼돈이 네 짐승의 모양으로 현실화합니다. 이미 2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을 통해 해석함으로 예언되었던 것들입니다. 첫째 짐승은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사자를 국가 상징으로 사용했으며, 날개 달린 사자 신상은 흔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다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징계를 받아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회복되었던 사건을 뜻합니다. 둘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다 몸 한쪽이 들린 곰’입니다. 이는 메대·바사(메디아·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이 제국이 정복한 큰 나라 중에는 바벨론과 리디아와 애굽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약 17년 후 사건인 5:28에서 벨사살 왕에게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고 알립니다.

셋째 짐승은 ‘머리가 넷에 날개가 넷인 표범’입니다. 이는 헬라 제국(그리스)을 상징합니다. 날개 넷은 알렉산더의 정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머리 넷은 이 제국의 후계자들인 네 장군 사이에서 네 구역으로 나뉠 것을(헬라와 마케도니아,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시리아와 바벨론, 애굽과 이스라엘) 뜻합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강한 짐승’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쇠로 된 큰 이빨이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로마는 이전 제국들보다 더 강력한 지배를 오랫동안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뿔 10개는 이후 인류 역사에서 태동할 많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들은 로마의 점령과 지배 방식을 추종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짐승들은 이름과 전성기와 발생지가 달랐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크기’를 추구하고, ‘점령과 지배’를 통치 방식으로 삼았으며, ‘짐승의 모양’으로 설명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다른 세력에 의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집단이 되고, 집단이 폭력성을 띠며 점령을 시작하는 제국이 될 때, 인간성을 상실한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 된 집단이 인간인 척 문명의 탈을 쓰고 발전을 가속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살아가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세 가지 길이 열렸습니다. 온 세상을 점령했다고 생각했지만 언젠가 다른 제국에게 먹힐 바벨론의 권력자 중 하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권력을 찾고 지금의 권력을 배신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짐승의 이빨을 뽑고 육식의 체질을 바꾸어 인간성을 회복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약육강식, 승자독식, 무한경쟁. 우리는 오늘의 세계도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이어지는 짐승들의 후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작은 뿔(8, 19-21, 23-25)

(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19-21)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놋이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3-25)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장에서 예언되었던 제국들의 특징과 몰락에 7장은 ‘작은 뿔’ 이야기를 더합니다. 작은 뿔은 10개의 뿔 사이에서 나더니 앞에 있는 3개의 뿔을 뿌리까지 뽑아버립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고 합니다(8절). 이는 미래에 올 악하고 강한 독재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를 ‘장차 올 왕’(9:26), ‘자기 마음대로 행할 왕’(11:36),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살후 2:3), ‘짐승’(계 13:1-10), 그리고 ‘적그리스도’(요일 2:18)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국의 폭력이 사탄적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이를 저지하고 저항할 시간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멈추지 않으면 사회는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낼 때까지 타인을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9-14, 22)

우리가 제국에 맞설 방법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13절; 출 13:21). 하늘 보좌에 앉으신 순결한 재판장이며, 비록 작은 뿔이 큰 목소리로 말하나, 모든 악한 세력을 강처럼 흐르는 심판의 불로 처단하실 것입니다. 14절은 그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사람이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자 같다(사람 같다)’라는 말은 그가 진정한 인간성을 갖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라는 칭호를 메시아를 뜻하는 것으로 보셨으며(마 8:18-22; 막 14:61-62), 자신에게 그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의 인성을 뜻합니다(시 8; 히 2:5-18). 다니엘은 아직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원한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17-18, 26-27)

(17-18)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6-27)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예수님께서 인간다움을 갖춘 권력자라는 것은 그가 자기 힘과 나라를 백성들에게 나누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의 ‘인자 같은 이’는 단수형입니다. 그가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과 27절에서는 그 권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얻고 영원토록 누릴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권력을 모두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자의 권력을 나눠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집단적 폭력을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28)

(28)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변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성경 다니엘은 1장과 8-12장이 히브리어로, 2-7장은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28절은 7장의 결론임과 동시에 2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1장에서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공동체(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았습니다. 2-7장은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이방 나라 점령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4장과 5장은 이야기 중심에 위치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교만과 광기와 몰락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며 이를 대적하는 현실의 권력들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비참해질 것임을 외칩니다. 3장과 6장은 현실은 우상을 섬기지 않거나 비겁한 신앙인으로 살지 않는 우리를 풀무불과 사자 굴 속으로 밀어 넣겠지만, 기적적으로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2장과 7장은 신상에 대한 환상과 짐승들에 대한 환상을 통해,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특정 제국에 합류할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인자 같은 이’를 붙잡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본문은 5장에서 벨사살 왕 시절에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 불러갔던 때(B.C. 539년, 약 81세)보다 14년 전입니다. 14년 동안 다니엘

은 여전히 포로였고, 바벨론 제국의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말씀을 듣고 미래를 본 자로서 다르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고 미래를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 손을 주먹 쥐고 제국적 폭력에 공모하는 것이 아닌, 인간다움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남을 지키고 돕고 격려하는 소망의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마주했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약육강식, 승자독식, 무한경쟁의 사회 속에서 힘겨워하는 중입니다. 우리 또한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 되어 두 손을 붙든 쥐고 타인을 먹고 부서뜨리고 밟지 않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폭력적인 다수를 떠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과 구역과 직장과 학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인간다워질 수 있게 각자의 손을 펼쳐 서로를 돌보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함께 지어저 가계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하루 하나님과 타인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적어봅시다.
말씀을 대면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질문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2.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집단적 폭력'에 대해 적어봅시다. 그 집단(조직이나 단체)을 어떤 동물로 묘사할지 생각해 봅시다.
3. 나 또한 타인을 '먹고 부서뜨리고 밟는' 적그리스도 세력 중 하나가 아닌지 돌아봅시다.
4. 가정, 구역, 직장, 학교에서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움'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해 봅시다.
5.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약 14년 뒤를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뒤,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그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9

그 환상을 간직하라

다니엘 8:1-27

1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삼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2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3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4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5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6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7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8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9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전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15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 내가 들은즉 올라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17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8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19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20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22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 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23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24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 그가 피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26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27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본 환상 -

숫양과 숫염소(1-14) / 가브리엘 천사의 환상 해석(15-27)

12장으로 구성된 다니엘서는 시대(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6장은 ‘사건 중심’의 내용이 시대(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7-12장은 ‘환상 중심’의 내용이 시대(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6장이 다니엘이 다른 사람의 꿈이나 환상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7-12장은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을 천사가 해석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의 때로부터 그 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환상과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14절까지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고, 15-27절은 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환상과 해석 부분을 오가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삼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에게 두 번째 환상이 보이게 된 때는 벨사살 왕 제 3년이었다고 증거합니다. 7장에서 벨사살 왕이 본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 네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 짐승들은 ‘날개 달린 사자’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곰’, ‘머리 네 개와 날개 네 개가 달린 표범’, 그리고 ‘쇠로 된 이빨을 가진 무섭고 강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나타났을 때가, 벨사살이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등극한 첫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환상은 벨사살 왕 제 3년이라고 하니, 7장과 8장의 간격은 2년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에게 2년 만에 비슷한 환상이 다시 나타나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만큼 지어져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자신의 욕망을 움켜쥐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환상’이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내는 것은 자기 욕망이요, 자기 야망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들어 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내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3-4)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 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제국의 수도 수산궁에 있었지만, 그의 눈에 펼쳐진 장소는 을래 강변이었습니다. 그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있었는데, 그 뿔은 둘 다 길었지만, 뒤에 나온 뿔이 앞에 나온 뿔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뿔은 ‘힘’을 의미합니다. 이 양이 동쪽을 제외한 나머지 세 방향, 서쪽과 남쪽, 북쪽으로 날뛰면서 들이받는데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고,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강하여졌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를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20)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 두 뿔은 메대와 바사(미디어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미디어가 페르시아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미디어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독립하면서 힘이 점점 더 강해졌고, 고레스 왕 때 두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동쪽으로는 인도를 제외한 이란과 파키스탄까지와 지중해 연안과 북아프리카의 이집트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숫양이 온 세상을 점령하는가 싶더니 한 숫염소가 나타났습니다.

(5-7)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 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다니엘이 숫양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뿔이 하나 달린 숫염소가 나타나서는 숫양의 두 뿔을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숫양은 숫염소에 맞서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양이 두 마리가 몇 마리의 쥐를 잡고서 의기양양하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갑

자기 큰 사자가 한 마리 달려와 두 고양이의 목을 동시에 물어 버려 두 고양이는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숫염소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숫염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21)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뿔 하나는 첫째 왕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뜻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약관 20세에 마케도니아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마케도니아와 헬라를 합병하고 5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두로와 애굽을 치고, 인도까지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온 세상을 파죽지세로 달리며 점령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B.C. 323년 33세에 원정지에서 열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지 13년 만에 요절합니다.

(8)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가 남긴 두 아들도 암살되어 그의 가문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

서 헬라 제국은 네 장군에 의해 네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카산드로스(Kassandros) 장군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차지했고, 리시마코스(Lysimachos) 장군은 현재의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했고, 셀레우코스(Seleucus) 장군은 북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했고, 프톨레마이오스(Ptolemaeos) 장군은 애굽(이집트)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은 이렇게 4등분되었고, 그 중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11-12)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네 나라 중 셀레우코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 중 셀레우코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코스 4세(Antiochus IV)의 종교적인 박해는 극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자신의 이름 뒤에 ‘신의 현현 나타남’을 뜻하는 ‘에피파네스(Epiphanes)’라고 붙여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되었습니다. 그는 등극하자마자 팔레스타인을 헬라화하는 정책을 강제로 시행했습니다. ‘헬라적 정책’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헬라의 우상들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의 ‘신사참배 정책’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경배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물론이었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했으며, 할례를 베푸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 매춘을 자행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라를 되찾자는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유다스 마카바에우스(Judas Maccabaeus / 유다 마카비)가 지도자였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修殿節, feast of dedication)_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단 한 번, 요한복음 10:22에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는 겨울이라고 증언하는데, 지금의 달력으로 하면 12월 25일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27)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서 여러 날을 앓았습니다. 우리가 간곡하게 그리고 깊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동안 누워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지점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치 고려말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조선이 일본에게 임진왜란을 겪어야 하고, 청나라에게 병자호란을 겪어야 하며, 구한말 한반도가 유린당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후에 다니엘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직무를 보았지만, 한동안 얼빠진 사람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66세 정도였으니, 회복은 아주 천천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이 기진맥진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길 ‘이 환상은 확실하니 환상을 간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은 수개월 내에 또는 수년 내에 일어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17절과 19절에서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때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때까지는 약 400년의 간격이 있고, ‘정한 때 끝’을 지금으로 보면 2,5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환상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모양은 다를지라도 이

와 같은 나라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났다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미래의 일, 세상의 끝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당시까지도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고생을 하지만 앞으로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고생을 하리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이나 유다 백성들이 지금은 이렇게 미약한 존재이지만 점점 더 힘이 강해진다는 의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아무리 강한 나라처럼 보이고, 그 누구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힘을 가진 나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소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강대국, 초강대국처럼 보이는 나라도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라만이 아니라 사람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흘 붉은 꽃이 없다_화무십일홍’이라는 말도 있고, ‘10년 가는 권력이 없다_권불십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매달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환상을, 그 말씀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그래서 신앙은 내가 커지거나, 내가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미약하고 유한하기 짝이 없지만 ‘영원히 크신 하나님’,
‘영원히 극대화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페르시아 제국처럼 보이고, 헬라 제국처럼 보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안티오코스들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날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성숙하지 못하고, 포로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페르시아 제국처럼 다가오는 문제들과 헬라 제국처럼 엄습해오는 환경들, 우리의 신앙을 짓누르려는 안티오코스과 같은 것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크게 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영원히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속에서 영생을 향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두 뿔 가진 숫양은 한 숫염소에게 꺾이고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또 주변에서 정말 강하며 크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꺾이는 것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때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2. 영원히 강한 것처럼 보였던 숫염소의 뿔이 꺾이고 네 개의 뿔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결코 나누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갈래갈래 찢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3.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생길에서 특히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꺼내어 보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없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간직하고 싶으십니까?
4.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주여

다니엘 9:1-27

1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5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9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10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2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며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6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17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 나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20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

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2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다니엘(1-4)

오늘 본문은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B.C. 539년쯤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해는 바벨론이 메대·바사 연합

국에 의해 무너진 시기입니다. 어수선한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언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 책을 통해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B.C. 605년이었으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희망찬 내일이 기약되어 있었음에도 다니엘은 안도하고 안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3-4) 내가 금식하며 배움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은 말씀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세대를 구별할 지혜를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4-19절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 기도했습니다.

(4, 현대인의 성경) 그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와 내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주는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항상 주의 약속을 지키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크고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위협하는 세상의 왕이, 위협하는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이 크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왕이나 세상이나 환경 또 인생의 역사마저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두려운 분임을 분명히 인식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다니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뿐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 중에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한결같은 사랑과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다니엘(5-19)

다니엘은 주님의 성품에 호소해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지은 죄를 자백했습니다.

(5-9,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였으며 주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주께서 보여 주신 바른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또 주의 종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관리들과 우리 조상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오늘날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주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의 왕들과 관리들과 우리 조상들까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를 거역하였습니다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되시는 주는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진심과 간절함으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비참한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통해서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절감하며 기도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가장 중요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죄를 먼저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함보다 우리의 원함을 이루는 데 더 큰 관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분별하여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비추

어진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은 계속 돌아보게 하시지만, 그보다도 우리는 ‘나’에 대한 관심이 더 크진 않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어하시는지...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 회복이 일어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겸허히 주님의 음성의 길을 따라 걸을 때만, 죄를 무너뜨려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 둘 때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았습니다. 복음송가사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러 모이지만, 그곳에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 슬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니엘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속에 허덕이는 이 백성을 품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고, 다니엘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들의 문제를, 또 그들의 죄를 나의 문제와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다니엘은 계속해서 1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끌어안

고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칠십 이레의 응답(20-27)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2-23, 새번역) 이렇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너를 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네가 기도를 시작한 즉시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너에게 말해 주라는 명령을 받고 여기에 왔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설명할 때 잘 듣고 네가 본 환상의 뜻을 깨달아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을 전해왔습니다. 이 말 후 가브리엘 천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24-27)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자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쟁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근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라

하나님께서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일흔 이레를 기간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흔 이레가 지나면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일흔 이레는 70년 곱하기 7로 490년을 지칭한다는 게 많은 학자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도 다양하고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 기간을 문자 그대로의 시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해석은 알기 어렵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픔이 있다고 그 아픔이 끝이 아니라, 슬픔이 있다고 그 슬픔이 끝이 아니라, 억울함이 있다고 그 억울함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회복의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그때가 있음을 믿고 그 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소망이 보일 것이고 소망으로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삶을 잘 분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 주님과 관계를 막는 죄의 벽은 없는지 잘 살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라도 죄된 세상을 원망이나 무관심으로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곳을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의 소망으로 찾아오심을 믿고, 그 소망으로 주어진 삶을 잘 인내하며 묵묵히 걷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를 보내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을 알게 된 후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2.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우리의 기도와 어떤 공통점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3.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4.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나를 어루만지기로

다니엘 10:1-21

1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2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3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4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히데젤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5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6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7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8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10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
 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14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15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16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 내 몸에 힘
 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18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
 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
 씩하옵소서 20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
 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
 주가 이를 것이라 21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10-12장은 다니엘이 보았던 4번째 환상으로 일명 히데겔 강가
 (티그리스강)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10장의 목적은 네 번째 환
 상의 배경을 소개하는 것이며, 환상의 본격적인 내용은 11-12
 장에서 전개됩니다.

다니엘의 습관(1-4)

바사 왕 고레스 원년(첫해)에 모든 포로에게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이 반포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당시 나이가 80세 이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체력적으로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혹은 페르시아(바사)에서 해야 할 어떤 일 때문인지, 그는 꿈에 그리던 본국으로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소명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들을 통해 하늘의 비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4절에 다니엘은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 강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유대력으로 유월절 절기가 속해있는 기간입니다. 그는 거기서 산책을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6:10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묵상하며 걸었을 것입니다. 즉 그의 영성 습관은 노년이 돼서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다리오 원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포로기간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역시 그가 노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보내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노년의 때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연로하면 삶의 현장에서 물러납니다. 이때 사로잡히는 것이 인생무상과 공허함입니다. 혹여나 하루를 허송세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전에 하던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전념해야 합니다. 시편 119:18 에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럴 때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맑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2-3)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2-3절에 다니엘은 세 이레 동안 슬퍼했다고 합니다. 본문에 다니엘이 금식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알려진 구약의 역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참담한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먼저, 본국으로 돌아간 동족들이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것이 힘들었고,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으나 방해의 손길로 중단되었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는데도 일부 동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나태함과 무관심 속에 이방 땅에 계속해서 남아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약해지고, 원수들은 기승을 부리는 것과 같은 이 현실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면서 동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고 거룩함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개인의 부요와 번영을 위

해 간구했지, 하늘의 뜻에 대한 진실된 간구와 거룩한 절박함의 간구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의로운 뜻과 거룩한 목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일생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엎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셨던 말씀의 성취, 사자 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풀무불에서도 보호하신 은혜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서 있음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이 악화된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있을 때 거대한 물을, 그 죽음의 물을 바람을 보내어 천천히 끝내 마르게 하셔서 그들의 발을 마른 지면에 닿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 말입니다. 창세기 8:1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 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을 것입니다.

(4-7)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선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5-15)

5-7절에서 다니엘은 한 사람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를 묘사하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고, 황옥 같은 몸과 번개 빛 같은 얼굴과 햇불 같은 눈, 빛난 놋과 같은 팔과 무리의 소리가 같은 말소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 1:13-16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다니엘이 그동안 보았던 환상에서 세상의 왕들은 사자, 곰, 표범 같은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러 오고 이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10-14)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어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달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10-14절에는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12절에 자신이 다니엘에게 온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즉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전해주기 위하여 천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니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3주 전에 응답을 받았고, 3주가 지난 뒤에 비로소 응답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응답의 전달이 지체된 이유는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라고 합니다. 바사 왕국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천사를 막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은 지연될 수 있으며, 영적인 훼방과 대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낙심과 나태함, 좌절도 생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지속적이고 낙심치 않는 기도만’이 ‘확고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원리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듣고 계시고, 다니엘의 경우처럼 기도하기 작정한 그날부터 응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 기간이 차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이 오기까지 인내하며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어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40:1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는 고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16-21)

16-19절을 보면 다니엘은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혼미와 무기력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린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할 때,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만지며 강건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19절에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라고 칭찬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큰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까불지 말고, 21절에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글’을 겸손히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글’이 우리를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저희가 다니엘처럼 평생 동안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집중 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저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삶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저희의 욕심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 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삶의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기도의 응답이 늦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저희의 말이 응답받았음을 확신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루 중 영성훈련(말씀묵상,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는 언제, 어느 곳인가요?
2. 다니엘이 동족의 안타까움에 대해 기도한 것처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안타까움을 느끼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3.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 제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응답의 시기에 대해서도 나눠봅시다.
4.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평안하게 혹은 강건하게 하신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참된 것을 보이리라

다니엘 11:1-19

1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싸우리라 2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3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4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뿔켜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5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6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에 도와 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7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8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9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10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 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11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 준 바 되리라 12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13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14 그 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15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16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17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18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19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1-2)

12장으로 구성된 다니엘서는 1-6장에는 4개의 사건이 기록되

어 있고, 7-12장은 4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의 네 사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결단(1장)과 느부갓네살 왕의 2번의 꿈 해석과 풀무불 사건(2-4장), 벨사살 왕의 성전 기물 모독과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문자 사건(5장),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간 사건(6장)입니다. 7-12장의 네 환상은 네 짐승의 환상(7장)과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8장), 칠십 이레 환상(9장), 그리고 히테겔_티그리스 강가의 환상(10-12장)입니다.

어제 본문인 10장이 히테겔 강가 환상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본론입니다. 1-2절은 페르시아 제국 4명의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내가’는 10:18에서부터 이어지는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합니다. B.C. 539년에 고레스 장군이 이끄는 메데·바사(메디아·페르시아) 연합군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고레스는 ‘다리오’라고 불리는 사람을 잠시 무너진 바벨론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는 미가엘 천사(‘그를 도와서’에서 ‘그’는 ‘미가엘 천사’)를 도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과 메데·바사가 싸우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연속입

니다. 하지만 그 위에 그리고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인입니다. 이때로부터 2년 후에 유다 백성들의 포로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하고도 신묘막측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 왕 이후에 3명의 왕이 순서대로 등극할 것이고, 4번째 왕은 이전의 왕들보다 국력을 부강하게 하여 헬라 제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 왕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세 왕은 캄비세스(Cambyses)와 스메르디스(Smerdis), 다리우스(다리오) 1세(Darius I)입니다. 다리우스(다리오) 1세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스 6).

네 번째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Xerxes I)인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인 아하수어로 1세(Ahasuerus I)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B.C. 480년 페르시아 제국의 100만 대군이 그리스를 침공하여 테르모필레(Thermopylae) 협곡에서 싸운 전투를 그린 영화가 <300>인데,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크세르크세스 1

세입니다. 테르모필레 협곡 전투와 동시에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 살라미스(Salamis) 해협에도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전한 페르시아 제국은 점점 몰락의 길을 갔고, 승전한 헬라, 고대 그리스는 점점 발전하여 서구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헬라 제국의 사분(四分)(3-4)

3-4절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4등분 된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한 능력 있는 왕’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뜻합니다. 8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약관의 나이(20살)에 마케도니아에서 왕위에 올라서, 마케도니아와 헬라를 합병하고 5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 두로와 애굽도 점령하고, 인도까지 진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나라의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온 세상을 파죽지세로 달리며 점령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B.C. 323년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 만인 33세에 원정지에서 열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4)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뿔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33세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과 이복형제도 모두 암살되어, 그의 가문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은 카산드로스(Kassandros), 리시마코스(Lysimachos), 셀레우코스(Seleucus), 프톨레마이오스(Ptolemaeos) 등 네 장군에 의해 4등분 되고 말았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5-19)

5-19절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후에, 애굽(이집트) 지역을 차지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 지역을 차지했던 셀레우코스 왕조 사이의 대를 이은 전쟁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 두 나라는 정략결혼으로 화친을 맺기도 하고, 배신으로 전쟁을 치르는 등 애증(愛憎)의 관계를 반복했습니다.

(5-6)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에 도와 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네 등분된 나라 중에서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가장 힘이 강하였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가장 힘이 약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셀레우코스 왕조의 힘이 세져서 나중에는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방 왕의 딸(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푸스의 딸 베레니스)’과 ‘북방 왕(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2세 테오스)’이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혼동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북방 왕은 본부인과 이혼을 하고서 베레니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지만, 다시 본부인을 데리고 와서 왕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본부인 왕비(라오디스)는 자기 남편과 그의 두 번째 부인인 베레니스,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모두 죽이고 맙니다.

이와 같이 애굽 중심의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 중심의 북방 셀레우코스 왕조의 화친과 전쟁의 관계는 오늘 본문인 19절까지는 약 130여 년간 이어졌고, 11장 마지막 절인 45절까지 하면 약 170여 년간 이어졌습니다.

(14) 그 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18-19)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6번째 왕인 안티오코스 3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이 4-7살 정도에 등극한 것을 알고 그때야말로 군사를 일으켜 정복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바닷가(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차례대로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군(로마의 스키피오(Scipio))에게 대패하여 항복 문서를 써야 했습니다.

패전하고 귀국한 안티오코스 3세는 자기 아들을 비롯한 20명을 로마에 볼모로 보냈고, 해마다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고, 심지어 제우스 신전에 있던 많은 보물을 탈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백성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비틀거리다 넘어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이야기입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두 가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움켜쥐겠다는 것과 지금 앉은 것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의자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출격할 때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은 명실공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또 전리품으로 수많은 재물을 안고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의 패배는 그를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로 가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 몰락하는 데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20살에 왕위에 올라 25살에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는 정복한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점령하고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바다를 바라보며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전 세계의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은 의자에 앉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천년만년은 고사하고, 70년, 80년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33살에 끝자리로, 아니 이 땅에서 그의 자리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알려진 대로 그가 열병으로 죽었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에 의해 감염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 의해서 그의 자리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은 10대에 볼모로 잡혀 와서, 80대가 될 때까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았습니다. 적국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한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적국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

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끝자리에 앉았고, 80대가 되어 사자 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가는 매듭을 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높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그가 받은 환상과 말씀은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의 내용 중 앞부분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국의 왕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다가 고난당하는 이야기이고, 뒷부분은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니엘서는 ‘역사책’이지, ‘성경_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아주 또렷하게 강조하는 것은 역사의 이면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도 고난과 핍박, 온갖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완성해가시는 하나님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축소하면 우리 개인의 인생 역사도 동일합니다. 그저 학교를 열심히 다닌 것 같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아등바등 살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하고 비명을 질러보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까지 힘들

게만 살아온 것 같은데, 지나온 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하게, 그리고 신묘막측하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의 모퉁이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한 가지는 역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0만이 넘는 병력이면 백전백승일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알렉산드로스도 33살에 열병으로 마지막 숨을 쉬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절정기가 오는 것도 아직 한참 남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인생을 향하여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이 하나님의 것과는 얼마나 많이 달랐으며,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항상 높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

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사는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크세르크세스를 비롯한 페르시아 제국 왕들의 이야기처럼 보이고,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가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을 차지한 왕들의 전쟁사와 같이 보일지라도, 실은 그 역사 뒤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이 말씀이 곧 우리 인생의 이야기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다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이 아주 진하게 나타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이방인의 땅에서도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난무하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가브리엘 천사는 미가엘 천사와 함께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하게 했다고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당신을 새롭게 했습니까?
2. 페르시아 제국의 왕 크세르크세스는 엄청난 수의 군대를 동원하여 헬라를 공격했습니다. 그 정도 군인이라면 충분히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페르시아 제국이 몰락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자랑삼다가 낭패를 당한 일은 없습니까? 그때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3.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큰 권세를 얻었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권세가 오래 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절하고, 제국은 4등분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반대의 결과를 낳은 예는 없습니까?
4.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다니엘 11:20-45

20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21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2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23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24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흠어 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5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26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흠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27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28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29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30 이는 짓딤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31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32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33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34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회개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36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37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38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39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40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41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애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42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퍼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43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 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44 그러나 동 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45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 줄 자가 없으리라

그동안 다니엘서 2-10장까지는 거대한 신상, 날개 달린 사자들, 숫염소, 숫양, 뿔들로 표현되던 왕들과 나라들이 11장에서는 아무런 상징이나 비유로 표현되지 않고 처음부터 나라들과 왕들로 직접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 세계를 대표하는 양대 강국인 애굽을 지배한 남방 왕(프톨레마이오스 왕조)과 시리아를 지배한 북방 왕(셀레우코스 왕조)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에 초점을 맞춘 역사적 읽기를 시도합니다. 이 전쟁이 다니엘서에서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한 이유는 전쟁 당사자인 북방 왕이 포로기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잔혹하게 박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로 생활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왕들보다 더 능력 있고 종말에 위대하고 강력한 승리를 허락해 자신들을 구원할 통치자라는 소망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필로파테르에 대한 예언(20)

(20, 새번역)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주전 190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몰락한 북방 왕, 안티오코스 3세의 왕위를 잇는 후임 왕 셀레우코스 4세 필로파테르는 매년 로마에 물어야 할 천 달란트의 배상금을 위하여 세금 징수원들을 여러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막대한 금은보화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성전을 약탈하기 위해 헬리오두루스 세금 징수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난입하는 순간 높은 말을 타고 황금 갑옷을 입은 사람의 환상을 보며 쓰러 집니다. 겨우 회생한 그는 오히려 성전에 제사를 드린 후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헬리오두루스는 자신을 보낸 북방 왕 셀레우코스 4세를 독살합니다.

북방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예루살렘 핍박(21-35)

(21)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1-24절은 한 비천한 출신의 인물이 북방 왕에 오르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북방 왕 셀레우코스 4세의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는 그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로마 감옥에 인질로 잡혀있었기에 그 나라의 영광은 정치적인 술수로 왕위에 오른 삼촌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북방 왕위를 차지한 에피파네스 왕이 할 일은 바로 남방 왕국을 공격하는 일일 것입니다.

(25)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북방 왕에 대항하여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모아 싸우지만, 남방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 곧 신하들의 역모로 결국 남왕국은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27절에 나오듯이 평화를 위한 회담석에 앉아서도 그들은 서로 거짓말하여 회담은 결렬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침략과 욕심을 버리지 않은 협약은 반드시 깨질 것이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을 뿐입니다.

(28)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언약”이라는 말이 3번(28, 30)이나 등장합니다. 이 거룩한 언약은 북방 왕과 남방 왕이 맺은 평화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학자들

은 북방 왕이 예루살렘에 대해 맺은 언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방 왕 안티오코스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팔레스타인에 머물렀다가 반란이 진행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해결하며 8만 명의 남녀 및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성전을 약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였기에 그가 거룩한 언약을 거슬렀다고 이야기합니다.

(29-30)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깃딤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이며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신자를 괴롭힐 뿐 아니라 어떻게든 신자 가운데 배도자가 나오길 회유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방 왕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며 그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방 왕의 마음은 이내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31-32)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 즉 예배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카베오서를 보면 단순히 식민지를 단호하게 통치하는 것을 넘어서 유대인들의 신앙 자체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유대민족의 고유한 습관을 버리게 하고,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히며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더불어 성전은 제우스 올림푸스의 신전으로 개명시켰습니다. 성전에 세운 가증한 물건이 주피터 혹은 제우스의 신상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며 악행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32절 마지막과 33절에서 보듯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고, 지혜로운 자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의 때 배반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구약의 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버리거나 배반하지 말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입니다.

(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일부는 신앙을 버리고 타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핏박은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연단하고 정결케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풍조를 좇아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35절 마지막에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왕을 통해 역사의 무대 전면에는 인간의 뜻이 등장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님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현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의식하며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는 이 일들은 약 400년 동안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이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상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우리 역시 순간순간마다 세워지고 낮아지는 역사의 자리에서 과연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가치

를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북방 왕의 교만과 몰락(36-45)

(37-38)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북방 왕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전형적인 교만하고 오만방자하여 불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우상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 아는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추지 않은 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실상은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저는 때때로 세상이 추구하는 강함과 부귀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저를 포함하여 세상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를 따라 교만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지 못할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자랑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때에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에 최후의 일전이 40절부터 벌어집니다. 그 싸움에서도 북방 왕이 결정적으로 승리한 후에 또다시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이스라엘을 모략하고 시기하던 에돔과 모압, 암몬은 북방 왕에게 붙어 안전하겠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결말은 아닙니다. 이 본문들은 실제 있을 역사를 반영하기보다는 종말에 있을 대대적인 영적 전쟁과 하나님을 대적하며 기세등등한 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회오리바람처럼, 거센 파도처럼 몰아닥쳤지만,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순식간입니다. 북방 왕이 재물과 부귀로 수많은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굴복시켰지만, 그의 끝 날에는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45)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 줄 자가 없으리라

포로 생활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기간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위와 나라가 주어질 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을 받는 것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전히 권고와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여행길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하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주시려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더 강한 힘과 부귀를 추구함으로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에 깊이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실천을 통해 나타납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낮은 자리로 가서 겸손히 맡겨진 일을 하는 모든 교우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올리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으며, 오늘도 높아졌다 사라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영원한 가치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원하는 자리에서 충성된 하루를 살아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북방 왕의 행동을 볼 때, 믿는 자를 향한 세상의 태도는 어떠한 것으로 여겨집니까?
2.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혜로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3.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방법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 12:1-13

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5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6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나 하더라 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8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천이 백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 12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뭇을 누릴 것임이라

12장은 다니엘서 후반부 4개의 환상 중 4번째 환상 일부분으로 다니엘 선지자가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기에 히데겔 환상이라고 합니다. 4번째 환상, 히데겔 환상 역시 4부분으로 나뉩니다. 제1부는(10:20-11:4) 4명의 바사 왕의 역사와 헬라 제국의 형성과 분열에 관한 예언이고, 제2부는(11:5-20)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수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사이 전쟁에 관한 예언이고, 제3부는(11:21-45) 셀레우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왕위 찬탈과 예루살렘 성전 모독과 그의 몰락에 관한 예언입니다. 제4부 12장은 말세의 대환난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개국 이래로(1-3)

(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때에’는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를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때에’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셀레우코스 왕조 시대 이후 인류 역사에 이 당시보다 더 큰 환난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생긴 이후 가장 큰 환난, 즉 대환난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 때’는 천사 미가엘이 나타나 선택받은 민족을 호위해야 할 정도로 대환난의 때입니다. 대환난 때가 절망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27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갈 곳은 구원받은 자가 들어갈 곳임을 생각해 본다면, 다니엘 본문 1절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뜻합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그 때’는 이 세상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환난과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대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그 대환난이 닥칠지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 환난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대환난의 때, 종말의 때, 그 때에 구원의 손길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때’가 종말의 때임을 알려주는 둘째 증거는 2절에 있습니다.

(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는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깨어난다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일어납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14:14에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15에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활하면 영생을 받을 것이고, 악인이 부활하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호흡하고 있는 우리는 마지막 숨을 쉴 때가 옵니다. 그 순간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언젠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와 같이 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인데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수치나는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구원의 손을 잡고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때’가 종말의 때라는 셋째 증거는 3절에 있습니다.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가 받을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데, 궁창(하늘)의 빛과 같이,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날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영광은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상을 받을 때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의미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가지도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달리 표현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옳지 못한 데에 있는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그르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때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역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도를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나 ‘그 때’에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4-9)

(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 때’인 마지막 때까지 예언을 잘 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봉합하라’는 의미는 예언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숨겨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그리고 악용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환난의 의미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환난의 때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목마름의 갈증을 풀어주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5-6)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나
하더라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중에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개역개정성경에는 두 사람으로 번역하였으나, 원문을 직역하면 ‘다른 둘’이라고 되어 있으며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둘은 다니엘 선지자와 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가 아니며 강 양편에

각각 서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존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물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다니엘 10:5에 나타난 분과 동일한 분으로서 성자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8절에서 이분에게 주님이 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어려운 질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답이 7절에 나옵니다.

(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놀라운 일의 끝, 대환난의 끝이 언제인지에 대한 답은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기까지입니다. 한 때 더하기 두 때 더하기 반 때는 세 때 반입니다. 3년 6개월을 뜻합니다. 다니엘 7:25의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9:27 마지막 한 이레, 즉 7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1:2과 13:5에서 언급한 42개월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8-9)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한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 선지자가 듣고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난해한 답변

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절대주권과 계획은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대환난의 결과를 알기 원했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재차 마지막 때까지 예언을 간수하고 봉함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말씀을 잘 간수하고 소중하게 지켜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수하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종말의 때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연단, 정결, 복, 뉘(10-13)

(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종말의 때에 닥칠 대환난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은 환난 중에도 깨달음 없이 악을 행할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환난을 연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3-4은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환난이 이 땅에 있겠지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큰 어려움을 연단으로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11-12)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천이백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 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처럼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때’는 환난의 때이며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24:15은 이렇습니다.

(마 24: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환난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21에서 ‘그 때’가 큰 환난의 때임을 말씀하십니다.

(마 24: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 중에 들었던 본문 1절과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기간을 알려주고 있는데 1,290일입니다. 이 기간은 본문 7절에서 언급한 한 때, 두 때, 반 때인 3년 6개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42개월에서 30일이 더 늘어난 기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늘어난 30일을 주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선택받은 백성을 모으시는 기간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35일은 1,290일에 비해 45일이 더 늘어난 기간입니다. 이 늘어난 45일은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30일과 45일 동안 정확히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명확히 밝히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억지로 알아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을 13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역시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단순히 ‘그 때’가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끝날에 네 몫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다니엘 선지자처럼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미 흠으로 돌아가 평안히 쉬며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서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마지막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을 낮은 자리에서 인내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고 그때까지 말씀을 소중히 지킬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류 역사에 피할 수 없는 대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환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삼아 정결의 시간으로 맞게 하시옵소서. 현재 겪는 어려움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낮은 자리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니엘 12장이 종말의 때에 관한 환상임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 주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신 의중(意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큰 환난의 시기에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기다리면 좋겠습니까?
5. 주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끝날에는 네 뉘를 누릴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끝날에 내가 누릴 뉘는 무엇이겠습니까?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호세아



차례

호세아 1:1-2:1

호세아 2:2-23

호세아 3:1-5

호세아 4:1-19

호세아 5:1-15

호세아 6:1-11

호세아 7:1-16

호세아 8:1-14

호세아 9:1-17

호세아 10:1-15

호세아 11:1-11

호세아 11:12-12:14

호세아 13:1-16

호세아 14:1-9



1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 1:1-2:1

1 웃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나라 하시니 3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4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갇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나라 5 그 날에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6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나라 7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8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 떤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마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나라 10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

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1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성경 호세아를 소개합니다

① 호세아의 뜻 : 구원 - ‘여호수아’의 뜻이 ‘구원’이고, ‘호세아’의 뜻도 ‘구원’입니다. ‘예수’의 뜻도 ‘구원’입니다.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 둘의 구분은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호세아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처럼 길이의 차이는 아닙니다. 호세아 뒤에 나오는 요엘보다 그 뒤에 나오는 아모스가 더 깁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스가랴가 모두 14장씩이지만, 스가랴가 더 깁니다. 또 기록연대순도 아닙니다. 호세아보다 오바댜, 요나, 요엘, 아모스가 더 먼저 기록되었음에도 호세아 뒤에 있습니다.

호세아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대선지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사야’인데, 그 뜻이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중에서도 호세아를 먼저 두고서, 하나님의 사

량과 구원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서를 보고서 하나님의 심판만을 강조하는 것은 선지서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핵심단어 : 돌아가다 - 호세아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돌아가다’입니다.

믿음은 올바른 대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세속적 가치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찢기고 상처 난 곳이 치유됩니다.

③ 특징 : 호세아 예언은 ‘환상적’이지 않고 ‘체험적’입니다.

호세아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에 나왔던 신비한 환상, 아무리 보아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내기가 어려운 말씀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호세아의 결혼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의 소명과 가족(1-9)

1-9절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 웃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활동했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최고조에 달할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했고, 남동쪽으로는 염해 옆쪽에 위치했던 모압까지 공략하여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안정 위에 교역의 확대도 이루어져 경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부강한 국방력과 경제적 번영은 급격한 영적 쇠퇴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적나라한 모습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아모스와 호세아에 잘 나타나 있는데, 아모스에는 도덕적 타락상에 대해서, 호세아에는 영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이 활동했던 시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 나라 임금은 1명, 여로보암 2세만 언급합니다. 반면 남유다는 네 명-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통치했던 시대 내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네 명의 통치 기간은 약 100년이나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에 소명 받았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후에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왕(마지막)이 등극할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북쪽 왕들의 이름이 아니라 남쪽 왕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의 왕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북이

스라엘의 신앙도 정통성 위에 서기를 갈망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북이스라엘에 6명의 왕이 더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역모를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이후로는 진정하게 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봅니다.

우리 성경에는 1절이 여러 왕의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여러 외국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은 ‘여호와와 말씀이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하였을지라도, ‘호세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도 우리 성경에는 여러 왕의 이름부터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하존_이상 / the vision’으로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선지서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등이 ‘말씀, 묵시’ 등으로 시작됩니다. 즉 여러 선지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전한 것이 예언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 시작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보았다, 계시를 받았다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말씀하셨다가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2)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 1-3장은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생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그림언어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선 선지자의 결혼이나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의 이름이 ‘마헬살랄하스바스’로 그 의미는 ‘노락이 속히 이루어짐’입니다.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숨’으로 그 의미는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입니다. 비록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갈지라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결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의 언약을 맺는 것인데, 결혼상대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은 언약이 깨어졌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어졌음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해도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몹시도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자’는 ‘매춘을 하는 여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 후에 음란해

진 여인’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았습니다.

(3-4)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말에도 ‘아내로 맞이하다’, ‘남편으로 맞이하다’라고 하듯이, ‘맞이하다’는 ‘결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이스르엘’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르엘_하나님이 흘으신다’는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이자 평야입니다. 아합이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지역이고, 예후가 아합 집안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된 곳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_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르엘_하나님이 흘으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생각에 정문일침(頂門一鍼)을 가하는 것입니다.

(6)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미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는 ‘아니다’라는 의미의 ‘부정접두어’입니다. 그리고 ‘루하마’는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자궁’입니다. 자궁은 태아에게 완벽한 환경이고, 엄마의 철저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라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뜻합니다. 이것은 제게 딸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딸의 이름을 정 무자비(無慈悲)로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6명의 왕이 더 있는데, 6명의 통치 기간이 31년에 불과합니다. 8년, 9년, 10년을 통치한 왕도 있었지만, 6달을 통치한 왕도 있었고 심지어 1달을 통치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 6명의 왕 중 아버지에 이어서 등극한 왕은 아무도 없었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암살과 역모가 이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의 의미인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8-9)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 떤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루하마가 젖을 땔 즈음에 고멜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로’는 ‘부정적두어’이고, ‘암미’는 ‘내 백성’입니다. 그래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암미’가 태어난 것은 로루하마가 젖을 땔 후입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아이에게 평균적으로 3년 동안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와 로암미는 4살 터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두 자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것을 요청하셨지만, 그들은 수년 동안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은 아들, 딸,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자녀를 낳았다면, 그 이름을 ‘정 황무지’, ‘정 무자비’, ‘정 이방인’이라고 지은 것과도 같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정도가 점점 더해 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잘못을 많이 했을 때 부모가 회초리를 들 수도 있고, 용돈을 깎을 수도 있고, 사 주기로 했던 것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제 난 네 아빠 엄마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10-2:1)

하나님께서서는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것만 경고하지 않으셨습니다.

(10-11)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2:1)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르엘’은 ‘이스라엘’이 되고, ‘로루하마’는 ‘루하마’가 되며, ‘로암미’는 ‘암미’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선지서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31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그 기간 왕이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키기도 하고, 왕을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앉은 것 같았는데, 자신

도 똑같이 죽임을 당해 그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6명의 왕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수치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하나님께서 흠으신다’이고, ‘로루하마_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이며, ‘로암미_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여김 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받은 말씀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절의 시작이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데 예전에 사용했던 한글개역성경은 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비로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같은 사람을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것같이 보였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년 지서의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사시는 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왕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연쇄사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 그리고 어느 기간 높은 자리에 앉아 온 나라를 호령하는 것 같았을지라도, 2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전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의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었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과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목격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세워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삶은 그 의미와 가치가 점점 일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괴리되고 있습니까?
2.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당신이 순종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순종했던 일이 있습니까? 그 결과로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3. 지금까지의 삶에서 ‘로루하마_공홀히 여감을 받지 못하는 자’와 같고, ‘로암미_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었는데, ‘루하마’와 ‘암미’로 결론 맺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4.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2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호세아 2:2-23

2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3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뉠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4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5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삼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6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8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9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 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10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11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12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13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4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7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8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있게 하리라 19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20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23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크게 2부분으로 나누면 2-13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하나님, 14-23절은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으로 인해 고발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 서게 되는 이스라엘(2-13)

(2)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호세아는 1장에서 세 명의 자녀(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말합니다(2절). ‘논쟁하다’는 ‘고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표준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논쟁하라’는 단어가 ‘고발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지만,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이며 고멜은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고발당하게 된 이유를 5절이 증거합니다.

(5)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삼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어머니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죄는 음행이었습니다. 음행은 간음하다, 매춘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하면서 끊임없이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고, 그들이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준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기름, 내 술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중심인 사고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과 바알을 섬기며 바쳤던 은과 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판결을 13절이 증거합니다.

(13)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하나님을 잊은 채 생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것들로 자신들을 장식하고 바알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알을 섬긴 기간만큼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죄를 범한 기간만큼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악을 벗어나지 않고, 욕망을 따라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한 시일대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을 발견했다면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14-23)

14-2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14-15)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4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며 이스라엘에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앞의 심판의 말씀과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거나 회복시키실 이유가 없지만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에게는 심판 후에 회복이 올 것이기에 이스라엘은 먼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후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죽음의 상징인 아골 골짜기(수 7:26)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고, 애굽 땅에서 포로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신 것처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통과 포로와 같은 삶이 반복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19-20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20)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결혼 관계를 부정하셨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겠다고 하시며 결혼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음행을 하여 신뢰의 관계를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진실함으로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 결혼한 관계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혼했다면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고, 세상을 목적 삼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을 내립니다.

(23)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음행한 이스라엘과 결혼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시겠다(루하마)고 하시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로암미)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암미) 말씀하시며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이라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각자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지만 뒤돌아서면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1.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고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2.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욕망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3.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며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나의 삶에서 바알(우상)은 무엇입니까?
4.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호세아 3:1-5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
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4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
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
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오늘 본문에는 계속되는 아내 고멜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 부정한 백성 이
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며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1)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아내 삼아주었음에도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 즉 이방 신들에게 희생 제사를 지낸 후 먹는 음식을 즐기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호세아 선지자 자신이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함으로 몸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무한한 사랑을 받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의 생명과 맞바꾸시면서까지 용서하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선의는 이용하되 이익을 위해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고멜, 이스라엘과도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 호세아가 자신의 부정한 아내 고멜을 다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라고 명령하시듯이, 우리 또한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며 그들을 천국의 잔치터로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꾸 죄를 짓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일곱 번까지 하면 됩니까?”라고 여쭙었을 때 주님께서는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 번을 일곱 번이라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곧 만 달란트 빚지고 용서받은 종이 백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무자비하게 대한 것에 대해 주인이 그 종을 엄벌에 처한 것을 예로 드시며,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하실 것이라며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용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우리 삶의 터전을 용서와 사랑의 터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순종과 희생(2)

(2)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은 열다섯 개와 보

리 한 호멜 반을 지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고멜이 진 빚을 호세아가 대신 갚아주고 데려왔거나, 가출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고멜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을 호세아가 사서 데려왔거나, 고멜을 데리고 있던 포주가 고멜이 나이 들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자 그녀를 노예로 팔려고 했던 것을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호세아가 자신을 배신한 아내 고멜을 위해 큰돈을 지불하고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은 5-10개였던 것을 감안해 보면 호세아는 노동자의 2-3년 봉급에 해당하는 큰돈을 부정한 아내 고멜을 위해 지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돈이 모자랐던지 보리 한 호멜 반까지 씹어지고 가서 데려올 정도로 사정 끝에 그녀를 데려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용서와 사랑에는 이처럼 자기희생이 수반됩니다. 자기희생이라는 대가 지불 없이는 결코 용서와 사랑의 터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며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희생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나의 희생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기적인 용서와 사랑은 가능합니다. 자기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타적인 용서와 사랑은 자기희생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자기희생의 터 위에서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싹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자기희생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잔치터로 초대받는 은총을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신 자기희생의 주님, 우리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또한 자기희생이라는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를 통해 우리 삶은 용서와 사랑의 터전으로 변모되어 가기 마련입니다.

호세아의 당부와 다짐(3)

(3)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내 고멜을 데려온 호세아는 그녀에게 앞으로 음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자신 또한 정절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자신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요구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희생의 터 위에 상대의 유익을 고려하며 함께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 헌신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굴레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거듭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며 다시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은 상대를 향한 신의를 계속 지켜나가는 의지이며 노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끝까지 그들과의 신의를 지키는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거듭되는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신의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알고 입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인들에게 우리 편에서의 일방적인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누군가 먼저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체 간의 사랑은 일방적인 한쪽만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 함께 노력해 가는 상호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숙과 회개(4-5)

(4-5)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부정한 아내 고멜을 다시 용서하며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향후 이스라엘 백성이 자숙 기간을 통해 하

나눔을 찾는 회개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날 동안’은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후 긴 포로 기간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앗수르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에는 왕이나 지도자를 통한 자치적이며 주권적인 통치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성전의 제사나 우상숭배가 없어질 것이라는 종교적 공백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큰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날 자신들이 범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그럼에도 자신들을 사랑해 주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며 자숙하는 자기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분별하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는 회개로 이어지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캄캄한 시련의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의지하며 붙잡았던 것들이 결코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했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심으로, 자숙의 시간을 통해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지혜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적 시련은 하나님 앞에 자숙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다시금 깨닫게 하는 지혜 충전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잔치터로 나아가는 은총을 입게 하시기 위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시며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실지라도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공급받는 영적 충전의 시간이요, 결국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잔치로 나아가게 하는 은총의 시간임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한 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우리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용서와 사랑의 터로 가꾸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의 잔치터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자기희생이라는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굴레를 씌우기보다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우리 주변인들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설령 예기치 않은 시련의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숙하며 그 누구보다도 우리 생에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는 영적 지혜를 공급받음으로, 결국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잔치로 나아가게 하는 은총의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은혜의 큰 잔치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정한 아내 고멜을 용서하며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하며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2. 호세아 선지자는 큰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부정한 아내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가 이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고린도전서 13:5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누구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 오늘 나의 모습을 성찰해 봅시다.
4.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신앙적인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보십시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1-19

1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말씀의 뜻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3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4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나 5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나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 그들은 변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8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9 장치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10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나 11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12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13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14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15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와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16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17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 18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19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쫓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없고, 없고, 없고…… 없어지리라(1-3)

14장으로 구성된 호세아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면, 1-3장과 4-14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3장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家庭事)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따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4-14장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타락에 대한 지적과 경고, 용서와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절은 4-14장까지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연까지 쇠잔해

질 것을 고발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중에서도 처음 시작되는 단어는 ‘들으라(Hear)’입니다. 이것은 ‘청력을 높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이자 애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외면과 불순종이고, 종착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외면과 불순종입니다.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_순종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개개인에게 재난과 환난이 임했으며, 결국은 나라까지 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반박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으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1-2)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니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논쟁하다’는 ‘소송하다’, ‘기소하다’의 의미입니다. 재판할

때는 사실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대충 보니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으니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와 같은 판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심증이 가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은 정확하게 없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없고’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라고 모아서 쓰며 ‘없고’를 한 번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번을 반복해서 씬으로 ‘없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진리’와 ‘신실’을 뜻하는 말입니다. 진실이 없다는 것은 바름의 가치관도 없고, 바름을 따르는 삶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애_헤세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unfailing love)’과 ‘떨어지지 않는 사랑(steady love)’입니다. 인애가 없는 것은 이런 사랑을 받고서도 받은 사랑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격적인 앎’입니다. 어린 아기는 부모의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하는 일도 모르지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은 십계명의 3, 9, 6, 8, 7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런 죄들을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쌍둥이를 임

신한 산모가 두 아기를 연이어서 출산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을 줄줄이 사탕처럼 저질렀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3)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 영향이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 온 자연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슬퍼하다’는 사람이 죽었을 때 매우 슬퍼하며 우는 통곡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예속된 관계도 아니며, 사람은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성귀를 낼 것이라” 땅의 슬퍼함은 고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할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만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자연과의 바른 관계도 세워집니다.

모든 사람의 우상숭배(4-19)

4-19절은 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이 타락하여 우상숭배하며 타락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심판과 경고입니다.

(4-5)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 엉망이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들에게 중보합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두 개의 큰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튼튼한 기둥이 아니라 속이 완전히 썩은 고목과도 같았습니다. 백성들과 종교지도자들의 형편없는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네 어머니를 멸하겠다”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믿음과 삶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호세아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 제사장이 제사장이 아니고, 또한 제사장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니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의 많은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7-10)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별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했던 때는 아합 왕 때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와 바알 중 누가 하나님인지를 선택하라고 외치자 백성들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은 아합 왕이 가져다준 경제적 부유함에 눈이 멀어서, 바알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

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 왕 때보다 더 번성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전보다 제사도 훨씬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 제물은 제사장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어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영은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지방질로 비대해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만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멍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고, 하나님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제사장들의 상태가 이러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상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1-12)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바른 분별력을 상실하면 음행하고, 포도주에 취하게 됩니다. 또한 음행과 포도주(술)에 취하게 되면, 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음행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르지 않은 결정을 계속해서 내리게 됩니다. 그때의 결정은 전부 자기를 쇠사슬에 매는 것들입니다. 또한 취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전부 후회와 한숨이 쌓이게 만듭니다.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3가지 중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중독되었을 때는 결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그런 결정을 내릴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15)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벤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북이스라엘은 음행하여도, 남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음란에 찌들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남유다는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피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에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예배 장소인 성전이 있고,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길갈과 벤아웬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갈_굴리가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후, 요단강을 건너

서 처음 진을 쳤던 여리고 동편의 땅입니다. 거기에서 할례를 베풀게 하셨는데, 애굽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지닌 지명입니다. 그런 곳이 당시에 우상숭배의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벤아웬’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악의 집’ 또는 ‘허무의 집’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도시 ‘벤엘_하나님의 집’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 벤엘에서 우상숭배를 함으로, 그곳이 이제는 ‘벤아웬, 곧 사악의 집_허무의 집’이 되었으니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갈대아 우르에서 온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이고, 야곱이 돌베개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셋째는 여호와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도 맹세하고, 하나님께도 맹세하는 이중플레이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맹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7-19)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싣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버려 두라’, ‘좋아하느니라’,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라는 동사를 보면 하나님의 버려두심 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아

주 강한 징계 중 하나가 ‘내버려 둬’입니다. 자녀가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형편없이 살아갈 때 부모가 야단도 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깊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 내버려 둡니다. 그것은 아주 큰 징계입니다. 특히 ‘우상과 연합하였으니’에서 ‘연합하다’는 여러 가닥의 실로 짜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우상을 섬기는 줄, 세속적 가치관의 줄, 음행의 줄 등으로 한꺼번에 새끼를 꼬듯이 그들의 삶을 꼬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피 땀한 호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초대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받을 사서 못 오겠다고 하고, 선지자들은 소를 사서 못 온다고 하고, 백성들은 우상숭배로 바쁘다며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되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으로뿐만 아니라 지혜로도 알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알아가야 우리의 삶이 영원에 잇대어진 것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온 삶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현상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매 주일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고백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교회 생활에, 가정에, 일터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신 큰 잔치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목상을 돕는 질문

1. 호세아 선지자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있어야 할 것 중에서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겠습니까?
3.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과 ‘벰엘’과 같은 신앙의 역사가 있는 곳을 우상의 도시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중요한 신앙의 장소를 기억하여 보십시오(예. 사도바울에게는 다메섹, 예루살렘, 로마 등).
4. 우상숭배와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들으라!

호세아 5:1-15

1 제사장들이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깨달으라 왕족들이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2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3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 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4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5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6 그들이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려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7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8 너희가 기브아에서 빨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9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10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 같이 부으리라 11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12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13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아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14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잡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15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심판 선고(1-7)

“피고, 제사장들이 들으라! 피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으라! 피고, 왕족들이 들으라! 선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예언서에는 다양한 문학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 연설 양식입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피고인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을 향해 심판을 선고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5) 제사장들이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깨달으라 왕족들이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비에 대하여 울무가 되며 다불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냈더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신앙의 장소였던 미스바(삼상 7장)와 다볼 산(삿 4장)은 이제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간음한 여인과 같습니다. 가나안 신에게 몸을 바쳐 음행합니다. 음란한 제사 행위에 몸은 이미 더럽혀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덧에 걸려 숨통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영적인 살육의 현장입니다. 누가 누구를 학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울무와 그물에 걸려 스스로를 살육하는 꼴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음행인지도, 더러운 짓인지도, 숨통이 끊어져 가고 있는지도, 죽어가고 있는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제사가 얼마나 세련되었는데요.” “우리의 명성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렇게 뻔뻔한 얼굴을 하고선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아갑니다.

(6) 그들이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겉만 번지르르한 제사는 자기만족입니다. 자기 열심과 고집

은,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의 행위는 분명히 자기만족입니다. 그 걸만 번지르르함 앞에서 이미 하나님은 떠나신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역겹다고 일갈하십니다.

(사 1:11-14, 공동번역) 아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이 많은 제물들을 나에게 바치느냐? 나 이제 수양의 번제물에는 물렸고 살진 짐승의 기름기에는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는 보기도 싫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오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 집 뜰을 짓밟으라고 하더냐?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제 제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행사와 축제들이 나는 정말로 싫다. 귀찮다, 이제는 참지 못하겠구나.

빠짐없이, 지치지도 않고 드리는 초하루행사와 축제들을 하나님은 정말 싫다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하십니다. 실컷 밤새 바람피우고 온 아내가 아침에 생일상을 차려 놓고 '사랑하는 내 남편!' 한다면 행복하겠습니까? 반대로 일주일 내내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바람을 피우고 온 남편이 생일 선물을 주며 '사랑하는 내 아내!'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조 없는 고백과 선물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차라리 면목 없어 하고 부끄러워하며 애처로운 얼굴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7)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다

‘새 달(호테쉬)’이 초하루행사입니다. 구역질 나고 역겨운, 반복되는 제사 행위는 도리어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조가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예배는 괜찮은가? 오늘 나의 신앙 행위에는 혹시 하나님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 교회는 이만큼이면 충분하고 괜찮은가? 이대로면 좋은가?’ ‘차라리 우리의 못남과 죄악을 토설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절박하게 고백하는 게 낫지 않는가?’

에브라임과 유다의 전쟁(8-15)

본문 8-15절의 배경은 주전 734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8)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기브아, 라마, 벳아웬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입니다. 병사를 소집하는 뿔나팔소리와 전투를 독려하는 나팔소리가 가득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베냐민 지파 지역에서 쫓고 쫓기는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남유다가 국경을 넘어

침입한 침략 전쟁입니다(10절).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표를 임의대로 옮긴 것입니다(10절). 이것도 큰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주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병들고 상처 입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강대국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13절). 결국 이 두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사자에게 찢기는 것처럼 멸망을 당합니다(14절).

(13-14)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아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15)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저들의 돌이킴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연신 양 떼와 소 떼만 가져다 바치는 무지몽매한 저들이 하나님께로 몸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진정으

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겉만 번지르르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까지,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원하고 바랄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오롯이 향하며,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고 순종하는 신앙의 걸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양 떼와 소 떼만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엾은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호세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아시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니까?
3.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곁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6

힘써
여호와의 알자

호세아 6:1-11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 여호와께서
이들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의 앞에서 살리라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알자 힘써 여호위를 알
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4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
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5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6 나는 인애
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
노라 7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8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 강
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
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10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
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11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
하였느니라

호세아서 후반부인 4-14장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타락에 대한 지적과 경고, 용서와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 5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힘써 알며 그분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1-3)

(1-2)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1-3절은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절이 선지자의 선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각성의 고백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지자의 선포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선지자는 암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힘써 하나님에 대해 알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내용입니다.

(3a)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알자 힘써 여호위를 알자

‘여호위를 알자’에서 ‘알자’라는 원어는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 경험적 지식을 함께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얻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얻는 인격적인 친밀함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100주년기념교회 교역자가 교우들의 주소와 연락처, 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교우를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교우와 만나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고, 본인이 살아온 환경은 어땠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힘든 일이나 기도제목은 무엇인지, 본인의 습관은 무엇이 있는지 등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까지 잘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지식에만 그쳐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고, 매일 매일 말씀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힘써’라는 단어는 ‘뒤쫓다’, ‘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여호위를 쫓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위를 알자’는 ‘우리가 여호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따르자’라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일 속에서 참 분주히 살아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화, 예배의 생활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 직장,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3b)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 빛 같이 어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비,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보통 ‘이른 비’는 10-2월 사이에 내리는 강수량이 많은 비로 곡식의 파종에 매우 필요한 비를 가리키고, ‘늦은 비’는 3-4월 사이에 내리는 비로 추수하기 전 곡식을 여물게 하는 유익한 비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비유는 햇빛과 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가장 필요한 순간마다 나타나 일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 물질, 자녀, 직장, 인간관계 등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

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4-6)

(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들이 할 일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섬김보다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속마음을 잘 숨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잘 아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경건의 모습에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그의 아우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렸습니다.

(창 4:4-5)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제물만 받으셨고 안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제물 자체만을 보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제물 드리는 당사자의 중심을 함께 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와 누구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순간 뜨거워 보이는 회개와 예배가 아닙니다. 감정의 자극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뜨거운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식는 신앙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 가벼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전적으로 바꿔 완전히 돌이키는 행위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겉모습뿐인 뉘우침으로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받아 주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피하지 못함(7-11)

(7-8)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미 5장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했던 내용들이 6장에서는 심화되고 다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역했는지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길르앗은 피로 물들고, 심지어 제사장 무리는 강도 떼와도 같이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인명과 지명을 언급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의 도움을 구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계획보다 위에 두며 ‘우리들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1-3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3)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들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늘의 기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할 줄 모르며 우상을 섬겼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며,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계획보다 위에 두며 '우리들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모든 교우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친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추석 연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외로이 추석을 보내야 되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까?
2. 왜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 주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3.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4.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호세아 7:1-16

1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폐지어 노략질하며 2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3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4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궜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멍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나라 5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6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7 그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9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10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1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12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 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13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나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나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14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15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16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엮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애타는 심정을 토로한 6장의 메시지에 이어, 오늘 호세아 7장은 북이스라엘의 국내외적인 정국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7절까지는 왕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들에 대해, 8-12절까지는 이방 국가를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어서 13-16절까지는 그런 이스라엘이 훗날 여러 민족에 의해 멸망될 것에 대해 탄식하는 내용의 예언입니다.

왕궁 안의 반란(1-7)

(1-2)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떠
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6:1에
서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며, 우리를 치셨
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치료하길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하
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더욱 죄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죄악은
특별히 왕을 모시는 왕궁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5-7)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 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지금의 왕을 쫓아내고 새 왕을 옹립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계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
비해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쿠데타와 반역으로 왕의 가문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왕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
들을 앞서 등장했던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화덕은 진흙으로 만들어 종종 땅에 들어가 있었고 원
통형이거나 벌집 모양으로 직경이 60-90cm 가량 되었다고 합

니다. 화덕은 항상 불을 때서 달구어 온도를 높인 상태로 유지합니다. 왕에 대한 계략과 음모를 항상 생각하고 역적모의를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과 마음이 것처럼 뜨거운 화덕과 같이 욕심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모사를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고백과 행위가 뒤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와 헌신으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심판(8-12)

8-12절까지는 이방 국가를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8-9)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화덕에서 빵은 뒤집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화덕에서 한쪽만 계속 불을 쬐어 타버린, 결국 먹지 못하는 쓸모없는 빵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섞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이는 북이스라엘의 외교와 대외 정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힘 있는 주변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외세 열강들이 북이스라엘과 무역과 외교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힘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마치 일본이 강화도에서 조선과 불평등 조약을 맺고 이후에 결국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에 이른 것처럼, 더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약소국과 조약을 맺으며 힘을 빼앗아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백발이 무성하다는 표현은 나이가 많아져서 머리가 희게 변하는 것처럼 그 나라의 힘이 없어져서 곧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와 애굽과 다른 주변국들과 관계를 맺으며 걸으려는,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게 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열강들에 의해 앞으로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이 영적인 교만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10)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으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그러다가 힘을 뺏기고 점점 멸망을 향해 나아갈 것이지만,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점점 멀어졌기에 선지자들의 외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교만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 겸손한 삶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매 순간, 어떤 일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겸손한 삶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시온의 대로를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하면서 앳수르와 애굽을 죽대 없이 왔다 갔다 하며 의지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그물을 던져서 그 비둘기를 떨어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교만하고 어리석

은 행위를 심판하고 징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주변국들만을 의지하고 상대하던 이스라엘의 미래는 파멸의 길이며, 그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파멸에 대한 탄식(13-16)

(13-14)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은 곧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은 곧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건져 주시려 했으나, 인간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지만, 각자 여러 이유로 초대 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잔치를 열어주셨고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는 죽음과 멸망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최후 역시 비참한 멸망입니다.

(15-16)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허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엮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로는 훈련하시고 단련하심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몇 번이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인내로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부러진 활처럼, 휘어진 활처럼 화살을 쏘면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미래는 멸망이며, 나라 잃은 슬픔을 당하고 포로 생활의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고, 주님을 위한 도구로 귀하게 써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내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함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오늘 한 날과 남은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을 바라보는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높으신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향하며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영역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돌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2.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가까이 오십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3. 이스라엘 백성들은 앗수르와 애굽을 오가며 의지하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돌아보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지 묵상해 봅시다.
4.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오늘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아나이다

호세아 8:1-14

1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2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3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4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5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6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7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8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9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앓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10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 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11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2 내가 그를 위하

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13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와는 그것을 기뻐
 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14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
 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건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
 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오늘 본문은 앞장들에서 고발된 이스라엘의 죄의 연장선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방(앗수르)이 독수리처럼 덮칠 것을 예언(1-3)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명령하시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보통 잔치 날에 축하
 하기 위해서 또는 위급 상황을 알리거나 전쟁의 신호로 사용합
 니다. 새번역성경은 본문을 “나팔을 불어서 비상 경고를 알려
 라!”로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상 경고를 알리라
 고 하신 이유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수리와 같이 날렵하고
 용맹스러운 북방의 앗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

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행을 저질렀지만, 음탕한 고멜을 다시 부인으로 받아들이라고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앗수르를 통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이유는 “하나님과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한 후 호렘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언약을 확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혼서약을 어기고 간음한 신부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는 배신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앗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앗수르가 침공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외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회개의 외침일까요? 아니면 이 같은 시련을 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는 외침일까요?

하나님께서서는 본문 13절에서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맞추어 희생 제물로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전심을 다해 제사를 지냈지만,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며칠 전 신문에 다음과 같은 미담이 보도되었습니다. 9월 6일 낮에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횡단보도 인근 인도에서 60대 여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이 장면을 목격해 바로 버스를 세우고 쓰러진 여인에게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행했습니다. 한 시민은 119에 신고했고,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은 불평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3분여 동안 계속된 심폐소생술 덕분에 쓰러져서 의식이 없던 여인은 호흡과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여인이 의식을 찾자 운전기사는 서둘러 버스에 올라 운행을 계속했고, 여인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운전기사는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하는데 그때 심폐소생술을 배웠다”며 “언제나 심폐소생술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안다”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길가에서 강도를 만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못 본 채하고 지나갔지만,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안 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으스스한 곳에는 강도들이 출몰하곤 했습니다. 또 강도들이 환자로 위장해서 도우러 온 행인들의 금품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 사람이 죽었을까 봐 더욱 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망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면, 결국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세운 무리가 바로 율법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종교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에 축적된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에 축적된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의 여행 중 가장 먼 여행은 불과 30cm에 불과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주님께서서는 “이미 선(하나님)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상숭배의 죄와 심판(4-8)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를 간구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로 인해 그들의 삶이 피폐해질 것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정 체제를 실시한 결과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 결국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약 344년을 존속하면서 다윗 가문의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존속했지만, 잦은 쿠데타에 의해 왕이 19명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리켜 “...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 내가 모르는 바이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벰엘과 단에 두고, 이것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과 함께했던 것과 같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게 되면 자신을 떠나갈 것으로 우려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고, 제사장도 자신이 임명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늪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우상을 섬긴 그들

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7, 새번역)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는 것은 헛된 수고에 불과하며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이
미 패망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결국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릇과
도 같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방을 의지한 죄와 형벌(9-10)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앗수
르나 애굽에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욕정이 찬 들나
귀가 돈을 주고 욕정을 채우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나 하
나님께서는 강한 나라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실 것이
며,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바치는 무거운 조공으로 인해 결국 쇠
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
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
상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욕정에 찬 들나귀가 되
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생

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물리적으로 좁은 문이 아니라 그 문을 선택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물건을 구입하는데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로 구입하면 “10%” 더 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금 거래는 세금신고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으려면 현금거래가 서로에게 이익입니다. 어떤 선택이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 눈에 진리의 문이, 생명의 길이 좁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썩어 없어질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닐까요?

유다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의 죄(11-14)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이 제단을 많이 만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제단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저마다 제단을 신축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제물로 쓰인 고기를 먹으려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제물로 쓰인 고기를 먹는 경우는 화목

제물에 국한되었습니다. 번제의 경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불 태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의로 화목제물로 변경해서 제물의 일부를 갈취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은 중요한 것과 부수적인 것의 순서가 뒤바뀐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주말에 태풍 ‘링링’이 서울을 통과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감사하게도 서울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밤새 태풍의 거센 바람으로 양화진 묘역 일대는 바람에 꺾인 가지와 나뭇잎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봉사자들이 교회 주변 길가와 입구 그리고 선교기념관 앞에 가득한 나뭇잎을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묘역 길의 일부분은 미처 청소하지 못했습니다. 당일 2부 예배 후에 보니 연세가 드신 집사님 내외분이 낙엽에 덮여있는 묘역 길을 열심히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교역자들이 지나가면서 “수고하십니다” 인사드리자 쑥스럽다면서 “그냥 지나가시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저는 사무실에서 홍보관을 갈 때 그분들이 낙엽을 치우고 계시는 길을 일부러 피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이미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13b)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범직한 이

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처럼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왕들이 저지른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 군사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화려한 왕궁들을 건축하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건물이 화려해지고, 의식이 성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건축 중이었던 헤롯 대왕의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함과 규모의 극치를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웅대하고 화려하기 그지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우셨습니다. 교회는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대한 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로 집중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성전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유다는 성읍을 견고하게 짓는 것으로 군사적인 위안을 삼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유다를 향해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다”고 주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성읍을 견고하게 지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성읍을 허술하게 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이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견고하게 짓고, 하나님만이 성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최선을 다해 사업에 몰두하고,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며, 정치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우상으로 삼는 세상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고난과 역경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택한 넓은 길이야말로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발정난 들나귀처럼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고, 주객이 전도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가을을 맞아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흘린 땀의 결실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마치 호세아의 시대와 같이 혼돈합니다. 아 니 호세아 시대보다 죄악이 더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주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재물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인생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고,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개개인의 죄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용기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파멸과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를 깨우고 생명의 길로 이끄는 나팔수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팔을 불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적군의 침략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하셨나요?
3.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를 나만의 언어로 재정립해 보십시오.
4.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5.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한 바를 기록해 보십시오.

듣지 아니하므로

호세아 9:1-17

1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2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3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4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5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6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7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8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9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10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 같이 가증하여졌도다 11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 같이 날아 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배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12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13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14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15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16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17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추수의 계절에 경고(1-3)

앞장에 이어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타작마당과 술틀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수의 계절에 추수로 인해 흥겨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며 그 이유를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추수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며 영적 음행과 온갖 문란한 육체적 음행을 저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묵과할 리 없었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을 선언하셨는데, 2-3절입니다.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먹거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근이나 가뭄을 통해 수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알게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비참한 삶을 예고하고 있는데, 앗수르에 끌려가 포로라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설사 앗수르를 피해 애굽으로 도망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역시 비참함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비참함에 대한 경고(4-6)

그 비참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6)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이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이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나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앗수르의 포로나 애굽으로 도망해 하나님
께 제물을 드릴 수 없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이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새번역성경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
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
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관계의
단절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
을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
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섭고 비참한 경고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
나님으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
나님과 교제 속에 살아갈 때만 온전한 인생의 의미를 채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
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망각(7-9)

또 한 번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7-9, 새번역)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지은 만큼 별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덧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져,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 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 때문에 영적 눈이 가려져 있어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높은 파수대에 세워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험을 성읍 내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영적 눈이 흐려져 이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불편하고 듣기 싫어 원한을 품고 비방한 것도 모자라 참 선지자들을 미친 사람 취급해 버렸습니다. 한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선지자들 역시 그 소명을 저버리고 백성이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 타락을 가속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부패가 기브아 사건 때의 부패와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사기 19-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첩이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고, 레위 사람은 그 여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레위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이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몰려와 집 주인에게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대신 내어주었고, 결국 첩은 윤간을 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일 후 레위 사람은 그녀의 시체를 열두 토막 내어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냈고, 결국 전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사사기의 어두운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극도의 음란함과 잔인함을 저질렀던 이 기브아 사건 때의 타락상이 바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말과 삶으로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늘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

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10-17)

10절 상반절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0a)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광야에는 포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던 포도를 만난다면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또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 열매는 매우 맛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 기쁨이 되는 존재, 이스라엘이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0b, 새번역) 그러나 바알브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모압평지에 위치한 바알브올에서 벌어진 사건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평지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벌어지지 말아야 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음행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들의 종교까지 끌어안으며 그들의 신인 바알에 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났습니다. 염병을 내리셨는데, 이만 사천 명이 이 일로 죽었습니다.

이때처럼 하나님은 바알을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먼저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떠나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이 잉태하지 못할 것이고, 설령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고 하여도 그 아이들을 살려 두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생각할 수 없는, 더 이상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철저한 멸망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설명합니다.

(15)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길같은 이스라엘에게 깊은 의미를 지니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할례 의식을 행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하고 구별될 것을 다짐한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우상숭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의미 있는 그곳이 온갖 악이 행해지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은혜로 보내진 자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은혜의 눈물이 스며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정이 그런 곳일 수 있고, 회사가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떠올리기보다 내 이기심이 자라가는 곳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함보다 미움, 불평, 증오로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취 우리 자신을 매일 점검해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불러 주신 주님만을 목적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속으로 초대해 주신 것처럼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 길과 울타리 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잔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심정을 읽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벗어나 할 우상을 벗게 하시고, 마땅히 저야 할 주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임을 믿고, 그곳에서 사명도 새기고, 은혜도 새기고, 감사도 새기며 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본문은 추수의 계절에 추수로 인해 흥겨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본문은 가장 비참한 경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서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3.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4. 나에게 길갈은 어디입니까? 나는 길갈을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10:1-15

1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2 그들이 두 마
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제단을 쳐서 깨뜨리
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3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
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
을 하리요 하리로다 4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
니 그 재판이 발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5 사마리아 주민이 벤아
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6 그 송
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렐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
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7 사
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같이 멸망할 것이며 8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
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9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
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
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10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11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멩을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밧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12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목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3 너희는 악을 밧같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14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벤야셀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 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15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벤엘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녕 망하리로다

심판의 경고(1-8)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부패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이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1)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하였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또 그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구가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막강하여 다윗과 솔로몬 때 만큼이나

국경이 길어졌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 후반에 호세아 선지자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절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성함의 이유를 우상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주상_한 곳에 서 있는 우상’을 꾸미는 일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다’는 ‘마음이 나누어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중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행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군대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자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때는 ‘바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사실을 잘 지적한 것이

엘리아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누가 하나님 이신지를 선택하라는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시고, 주상_돌기등을 부수신다고 하십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5-6) 사마리아 주민이 벤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렘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벤아웬’은 ‘벤엘’을 뜻하는 지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곳인데, 그곳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었고, 야곱이 돌베개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가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거기마다 금송아지를 세우는 등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 ‘벤엘_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벤아웬_사악의 집, 허무의 집’이라고 경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사악의 집, 허무의 집으로 만들어 버린 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렘 왕’의 문자적인 의미는 ‘싸움의 왕’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상숭배는 곧 나라를 허무는

출발이자 마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8)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사와 짚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 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물의 표면에 맏히는 거품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거품이 무지갯빛을 띠고 아무리 영롱하게 보일지라도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또 거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터집니다. 또한 ‘거품’은 ‘나무토막’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강물이나 시냇물 위에 떠 있는 나무토막이나 나뭇가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보면, 떠내려가고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잘 꾸미려 했고, 정성을 다했던 베엘에 세운 산당에는 잡초만 무성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최초의 대중가요가 ‘황성옛터’입니다. 한때 찬란했던 고려의 왕궁, 만월대를 바라보고 지은 노래입니다. 2절 가사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푸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하나님의 집이 우상숭배의 도시가 되어 버린 베엘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징계(9-15)

9-15절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기브아까지 소급하여 추궁하고, 결국 징계를 당할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9-10)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 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 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북이스라엘은 기브아 시대 때부터 당시까지, 3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19-21장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참극입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성폭행과 살해를 당하자, 그 시체를 12조각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어서 기브아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을 온 나라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베냐민 지파는 그 일로 인해, 전멸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일은 생각도 하기 싫은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의 시대가 그 옛날 사사 시대처럼 잔혹하고 추악함이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물리침을 당하는 ‘두 가지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반역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상숭배와 연결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대용품_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다윗의 계보가 아닌 다른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성전을 대신하기 위해 벨엘에 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11)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멩어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흫덩이를 깨뜨리리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트랙터와 같은 농기구가 없던 당시에 소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밭을 가는 일도 해야 했고, 곡식을 등에 지고 옮기기도 해야 했으며, 곡식을 빵기 위해 연자맷돌도 돌려야 했습니다. 그 중 소에게 가장 쉬운 일은 곡식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소가 곡식을 뜯 때는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 율법의 관례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뜯는 소는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복과 형통, 풍요는 좋아하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는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사람도 태우고 수레도 끌

어야 하고, 밭도 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먹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에게 압제를 당하며, 곤고한 날을 보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2)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의 뜻을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곡식의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공의를 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긍휼한 마음, 깊은 공감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고,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묵은 땅을 뒤집어엿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길처럼 딱딱해진 땅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심령이 욕망만을 추구하느라 율법과 말씀의 쟁기로 한 번도 뒤집어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의 땅을 뒤집으면 공의의 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땅을 아무리 뒤집어서 거기에 곡식을 심어도 물이 없으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뒤집음과 공의의 비가 합해져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어찌하였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13) 너희는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북이스라엘 백성이 ‘갈고’, ‘거두고’, ‘먹은’ 것 전부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밭 갈아 심은 것은 ‘악’이었고, 거둔 것은 ‘죄’였으며, 먹은 것은 ‘거짓 열매’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의뢰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용사_군사력’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군대로 나라를 충분히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14-15)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벤야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 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벤엘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녕 망하리로다

북이스라엘은 국방력이 강하고, 산성을 높이 쌓으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산성을 쌓아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베엘에 송아지로 우상을 만든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부서질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에 이스라엘의 왕이 잡혀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에 왕의 죽음은 곧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고, 전쟁의 패배는 곧 국가의 멸망과 동의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혼란을 겪다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제1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준다고 믿은 바알을 비롯한 가나안의 토착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 삶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고대에는 우상숭배가 돌이나 나무같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병든 이기심(욕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삼고, 하나님은 조력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자신이 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잔치를 여시고 초대를 하는데도 자신은 받을 샅기 때문에 나가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소를 샅기 때문에 시험을 해 봐야 한다고 말하며, 결혼했기 때문에 내 생활에 더 치중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민족이 거리와 골목에 있을 때, 길과 울타리 가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며, 내 길을 고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것이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으며, 그것보다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기심의 묵은 땅, 욕망의 묵은 땅, 세속적 가치관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공의를 심음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경험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에 집중하다가 그 열매 맺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벤엘_하나님의 집'을 '벤아웬_사악의 집, 허무의 집'으로 전락시키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묵은 땅들을 갈아엎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공의로운 비를 경험하는 복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에 집중하다가,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잊은 일은 없습니까? 있다면 그때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2. 두 마음을 품어 마음이 나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일로 마음이 나뉘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3. 당신의 삶의 영역에서 묵은 땅으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영역을 어떻게 기경하실 수 있겠습니까?
4.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용품은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호세아 11:1-11

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
늘 2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
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3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
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
은 알지 못하였도다 4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5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 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6 칼이 그들
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
미암음이니라 7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
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
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10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

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어 오되 11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 같이, 맞수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지금까지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곧 선지자 호세아와 부정한 여인 고멜의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로 설명해왔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기초로 세워진 관계입니다. 사랑에 기인하여 세워진 관계이니만큼 양쪽 모두의 신의가 중요합니다. 한쪽의 신의가 무너지면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와 고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관계는 달랐습니다. 부부의 한쪽이 신의를 무너뜨렸지만,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멜과 이스라엘이 신의를 지키지 않더라도 호세아와 하나님이 신실하게 맺어진 관계의 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그들에게는 회복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부부관계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모자녀의 관계입니다. 이제 11장에 접어들면서 마무리되는 호세아서는 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어 설명합니다.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자녀에게 베푸는 부모의 사랑은 바랄 것 없는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부모는 여

전히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빗대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부부관계의 계약적, 상호적 사랑의 관계를 넘어서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무조건적, 일방적 사랑의 관계로 확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1-7)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는 본문은 이스라엘을 어린아이에 빗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을 ‘내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어렸을’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아르’는 유아기나 소년기의 아이로도 번역이 되지만, 아직 경험이 적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던 때를 ‘나아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무력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닿자 그들에게는 출애굽이라는 구원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2)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비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우상들 앞에 제사를 지내며 그들을 따랐습니다. 계속해서 배신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자상한 부모님이었습니다.

(3-4)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잘 걷지 못하는 아이의 두 팔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도록 도와주는 부모와 같이 섬세한 사랑이었고, 걷지 못해 주저앉아 있을 때는 품에 안아주는 자상한 사랑이었습니다. 섬세하고 자상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죽을 고

비를 넘겨가며 살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곁을 떠나 버릴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멍에를 벗게 해 주셨으며, 나아가 그들 앞에 먹을 것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도 자녀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5)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 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호세아서가 기록되던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세는 앗수르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앗수르의 공격 앞에 애굽에 기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막다른 골목 끝에 서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머물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경험이 적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 나아르에 비유되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지금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앗수르의 맹

렬하고 강력한 공격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7)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간다고 증언합니다. 본문의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를 개혁한 글성경에서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물러설 곳조차 없는 이 상황에서 도리어 전적으로 세상의 힘과 우상에게 매달릴 것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강력한 결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원자였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는 섬세하면서도 자상한 사랑에 기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찾아온 사랑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효를 다하지 않는 자녀와 같을지라도, 또 신의를 다하지 않는 부부와 같을지라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상태 즉,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섬기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약속(8-11)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분노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8-9)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8절에서 언급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성읍(신 29:23)이었습니다. 어찌면 아버지의 돌아오라는 부름에 한 명도 일어나지 않는 이스라엘과 의인을 찾고 찾았으나 열 명의 의인이 없어 불과 유황으로 없어지

게 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은 매우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멸망의 불과 유향을 내리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불만큼이나 아버지에게는 긍휼이 불붙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멸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잘못 앞에 회초리를 들어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의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진멸이 아니라, 포로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그리고 이스라엘, 서로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벌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을 번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진노를 멈추시고 불과 유향에 의해 말살되는 벌이 아니라, 포로로 살아가는 벌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에 대한 불성실함으로 인해 흩어져서 수없이 많은 세월을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0-11)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어져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 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어져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하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합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새끼사자는 단숨에 어미사자의 품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하나님의 소리는 이와 같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서쪽에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동쪽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은 다르지만, 대개는 이는 마지막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최종적인 회복에 초점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서쪽이라는 방향보다는 회복이라는 결과의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새와 비둘기같이 겸손하게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인도에 따라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들의 집, 곧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끝에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몇 천 년 전의 이 약속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거리와 골목에서 서성거리고, 울타리 밖에서 외로움과 좌절, 절망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의 잔치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간다고 했다가 금세 마음이 바뀌어 받을 샀다는 이유로, 겨릿소를 시험해보아야 한다는 핑계로 굳어버린 우리의 사고에 사로잡혀 초대된 잔치를 뒤로 미루는 것이 우리 삶의 일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자의 포효와 같은 소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그리고 딸아, 돌아오라.”, “딸아, 그리고 아들아, 돌아와다오”라고 다시 한번 거리와 골목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이라면 품꾼으로 사는 것이라도 만족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때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시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시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회복을 보며, 그리고 우리를 안으신 하나님을 보며, 아직도 거리와 골목을 서성이는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징검다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해 부부의 사랑을 넘어, 이제 부모자녀 관계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앞에 취엄열매를 먹으며 돼지우리에서 더러워진 몸을 일으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달려갈 때, 여전히 아들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의 모습이 도전이 되어, 세상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해 봅시다.
2.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던 것과 걸음마를 떼도록 도와주시고 안아 길러주셨던 지금까지의 은혜들을 묵상해 봅시다.
3. 당신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자리를 잊게 만드는 현재의 우상과 죄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봅시다.
4. 죄악의 자리에 서 있는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항상 너의 하나님을

호세아 11:12-12:14

12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1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2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3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벤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5 여호와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사라 여호와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6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7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8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지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9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10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11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나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발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12 야곱이 아랍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13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 받았거늘 14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4장부터 시작되는 호세아서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심판 경고가 주요한 내용입니다. 후반부가 심판 경고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밑에는 호세아서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스라엘의 거짓된 행위와 그에 따른 경고가 있지만, 이와 더불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11:12-12:6)

(12)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이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이기에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언급되곤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사람

이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꾀하였다고 하니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듯 하나님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남유다는 정함이 없다고 합니다. 정함이 없다는 뜻은 ‘제멋대로 행하다’입니다. 하나님께 제멋대로 행하는 남유다 역시 심판의 경고를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1)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허망한 것을 좇음을 의미합니다. 배부르지 않고 아무 유익이 없는 바람을 먹는 북이스라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풍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은 식물들을 말라 죽게 하는 바람입니다. ‘동풍을 따라간다’는 말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거짓과 포학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앗수르 살만에셀과 주종관계의 화친을 맺어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와의 외교로 만족하지 못하여 남쪽 강대국 애굽에게도 조공을 바쳤습니다. 애굽에 ‘기름을 보낸다’는 것은 조공을 바치면서 동맹을 맺었다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애굽과 동맹을 맺었고 이를 알게 된 앗수르가 분노하여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망시켰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주변국과 외교를 잘 맺어 나라의 안보를 꾀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강대국만을 의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거짓과 포함과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신뢰해야 하는데, 세상의 어떤 힘을 최우선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에브라임의 뒤를 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아굽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논쟁하신다는 것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논쟁’이라는 단어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검찰처럼 유다의 죄목을 밝혀 기소하시고, 재판장으로 기소 사실에 대해 형을 선고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굽’을 언급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전부 포함하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가 심판의 대상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면 행실대로 벌하시며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4:9에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

다. ‘행실대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길을 걸을 때 이미 만들어진 길이 먼 거리이고 눈에 짧은 거리가 보일 때 대개는 짧은 거리로 다니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 발자국으로 인해 새로운 길이 생기게 됩니다. 잔디가 사람의 발로 인해 흙길로 변해버린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행실대로’입니다. 사람의 행실대로 생겨버린 길입니다. 이 길은 반복적인 행동이나 습관으로 생겨난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온 길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그리고 행실대로 벌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반복적인 행동이나 습관을 버리고 좋은 행실로 살아가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3-4)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야곱의 과거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형 에서와의 갈등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악화되어 부모와 살던 집을 떠나 외삼촌이자 장인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타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했던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김을 뜻하는 ‘이스라엘’이 야곱의

새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근간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 야곱처럼 어머니 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없었을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우리 각자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곰곰이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5절과 같은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5) 여호와야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야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나라에 대한 절대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이름을 잊을 수 없으며,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6)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를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자신의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된 제멋대로 인생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처럼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랄지어다’는 ‘기다릴지어다’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7-14)

(7-8)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 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는 에브라임입니다. 한글개역개정성경에서 상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케나안’입니다. 가나안 사람을 뜻합니다. 가나안 사람을 상인으로 번역한 것은 고대 가나안이 유명한 상업 지대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에브라임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돈벌이에 힘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물질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 가야 하는데, 돈을 목적으로 살아갔기에 거짓 저울로 속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은 전혀 없고 자신이 부자라며 자랑했습니다. 자신에게 불의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죄가 있으면 찾아보라고 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탐욕을 낳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죄에 지배를 받을 때 남을 속이지만 자신도 그 죄에 속아 넘어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불의가 정의라고 착각합니다. 죄가 사람을 지배하여 왕 노릇하게 되어 결국은 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탐욕과 죄는 자라기 전에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다음 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9)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출애굽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에 거했습니다. 명절날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인 장막절을 뜻합니다. 장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이지만, 40년 광야의 장막 생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했기에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

로 현재 이스라엘이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외면함으로 인한 고난을 다시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외면할 때에 겪었던 그 고난을 다시 겪게 된다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10)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것에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이상(異像, vision)과 비유로 많이 경고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은 선지자들이 본 환상이고, 비유는 선지자들이 직접 보여준 특이한 행동입니다. 이를테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여기서 말하는 비유입니다. 이상과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애타는 기다림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했음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이 받을 심판을 알려줍니다.

(11-14)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 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길르앗은 6:8에서 ‘악을 행하는 고을이라 피 발자국이 가득 찼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길갈은 9:15에서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라고 할 정도로 이곳 역시 악행의 성읍이었습니다. 길갈은 4:15에 벤아웬과 같이 언급된 최악의 성읍으로서 우상숭배가 행해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곳이 돌무더기가 쌓일 정도로 황폐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라는 차원에서 과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일을 회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2,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삼촌 집 밧단아람으로 피신하도록 인도하셨고, 거기서 아내를 얻게 하였고, 그가 양을 치며 먹고 살도록 하였고, 20년 후 고향으로 돌아와 살아가다가 흉년을 만났을 때 그것을 피해 애굽에서 살았고, 그 이후 모세를 통해 종살이에서 벗어나 출애굽 하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과 속임수로 불의를 행할 수 있느냐는 책망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극심히 격노하게 원인 제공을 하였기에 심판이 그들 위에 머물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은 천국이라는 혼인 잔치에 제일 먼저 초대받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로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은 그들이 간절히 초대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들

에게는 주인의 격노의 결과로 인한 수치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에게 심판의 경고를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허망한 바람을 먹고 생명을 죽이는 동풍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혹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라고 전하는 오늘날의 호세아가 되십시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사랑의 줄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제멋대로 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행실대로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울타리 밖에서 배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1. 이스라엘(에브라임, 유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2. 나라가 외교를 잘해야 하듯이 개인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3. '행실대로 별하시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4.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5.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의 명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 13:1-16

1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 2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3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4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5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7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 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8 내가 새끼 잃은 곰 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9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 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10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11 내가 분노하므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하므로 패하였노라

12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13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14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15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썩아 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16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엮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뱀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1-8)

열네 장으로 구성된 호세아의 전반부 1-3장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家庭事)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따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후반부 4-14장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타락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인 에브라임이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한 것에 대한 경고와 그런 일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있었음을 경고합니다.

(1)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은 본래 요셉의 두 아들 중 둘째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그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성경에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사용되곤 합니다. 마치 ‘시온’은 본래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산(언덕)의 이름이지만 주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길을 가는 본을 보이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는 불의한 길을 가는 본을 보이니까 온 이스라엘도 그렇게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알’의 뜻은 ‘주인’인데,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주인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길로 갔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2)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식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만났던 사람 중 ‘데메드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데미(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을 조각하여 판매하는 종교사업가였습니다. 것처럼 고대에 우상 세공업자들은 상당히 전문직이었고, 우상 조각하는 일은 고소득의 원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가 필요했지만, 완전히 정착한 후에는 ‘풍요의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기들이 생각하는 풍요의 신을 또 만들었는데, 그것이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하여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자, 그들은 아론과 더불어 출애굽 때 가져온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있던 금고리를 모아 만든 것이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외치며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의 모습으로 만든 것입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신 중 하나가 ‘아피스(Apis)’인데, 그것이 풍요의 신이며, 그 모습이 ‘황소’였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여 만드는 삼각지(델타)는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니, 거기가 ‘애굽 땅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까지 사람들은 송아지 신상에 입을 맞

추며 존경을 표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어리석은 일을 그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3) 이렇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으며, ‘쪽정’이와 ‘연기’ 같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일시적이라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어서 덧없음과 허무함을 뜻합니다. 또한 이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이어서 실상과 같이 느껴 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허상이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내가 실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틀림이 없고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상으로 밝혀지고, 모호하고 흐릿하게 바뀌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할 때가 있고, 가진 것이 그러할 때가 있고, 앉은 자리도 그러할 때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분명한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구절의 첫 단어이자, 강조되는 단어는 ‘나는’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꺼낸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들과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은 다 ‘허상’이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실상’이라는 의미입니다.

(5-6)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 데도 기뻐할 데가 없는 마른 땅에서 그들을 아꼈다(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는 인격적인 교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탄소를 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온 정성을 다해서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교육을 받게 하여 다 키워 놓으니까, 하는 말이 “해 준 게 뭐 있어요?”, 이웃에 사는 용돈 한 번 준 사람보고, “그분이 나를 키워었어요, 그분이 훨씬 더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사를 내려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 주시며, 구름기둥

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할 때도 그 전에 전쟁을 해 보지도 않은 노예 출신의 오합지졸 군대가 연전연승을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알로, 자신들이 만든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8)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 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 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우상숭배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이 맹수와 같이 바뀌어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자는 백수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잡히면 빠져나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또 표범은 모든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사냥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리고 곰도 굉장히 강한 맹수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도 곰과 일대일로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빼앗긴 암곰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들짐승들도 사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에나나 들개들은 떼로 다니기 때문에 사자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런 맹수와 같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불순종하는 것을 보니 속이 너무도

상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맹수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징계하심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9-16)

9-16절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랐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9-11)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 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하므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하므로 폐하였노라

이스라엘은 패망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 주는 하나님을 향해 칼을 겨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 망하지 않았음에도 패망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면 싸우지 않아도 진 것과 마찬가지로, 서 있어도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지도자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왕을 주고, 진노하심으로 폐하였다고 말씀하심

에서 자연스럽게 사울 왕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오래전에 장차 때가 되면 왕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과 같이 왕의 제도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울 왕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길만을 고집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은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개인으로 축소하면,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시 106:15)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아니냐도 우리의 관심사이지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2)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무슨 의미인지 빨리 다가오지 않는데, 새번역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북이스라엘이 죄 위에 죄를 또 짓는,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3)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인이 결혼하여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태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음에도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임신기간은 40주, 280일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태아가 280일째 되는 날에 세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부(妊婦)들은 40주가 가까워지면 초긴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미 출산의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만약 분만(출산)예정일이 2주가 지나도 태아가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때는 태아는 물론 산모도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출산의 고통도 크지만, 그것보다도 나오지 않는 태아의 상태는 더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15-16)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엮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밴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동풍’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이 모든 것을 말려 버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고온건조한 사막열풍입니다. 그것이 물을 말려버리는 것처럼, 아시리아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게 될 때 어린아이들과 임신한 여인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러하다면 남자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낱낱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자신의 실상을 직시하고,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번 정해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속에 머무는 두 번째 부르심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신 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신들을 불러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자,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적어서, 그리고 거리와 골목, 길과 울타리 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를 받았고,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실을 되새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속에 사는 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 하게 해 주셨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자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그 신을 섬기는 어리석고도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반면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욕망을 요구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의 출발을 잊지 아니하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속에 있는 날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에브라임(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미련한 미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떠받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 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심으로 왕을 세우시고, 왕을 진노하심으로 폐하셨다고 하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간구했거나, 간구하고 있는 기도제목은 없습니까? 그 간구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4. 당신의 삶에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

호세아 14:1-9

1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2 너는 말씀과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
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3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
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
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
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4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
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5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6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7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
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8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
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
리라 9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와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
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95조 논제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단지 형식적이고 마음에도 없는 외적인 고해가 아니라 내적인 속죄, 즉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죄 지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받는 영벌과 현세와 연옥에서 잠시 받는 잠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제에게 죄를 고해하면 지옥의 영벌은 면할 수 있지만, 지은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벌, 즉 잠벌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후에 사제가 부과하는 금식, 순례, 자선 등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 죄로 인해 받아야 하는 벌, 잠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생전 잠벌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연옥에 가서 남은 잠벌을 해소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벌부를 돈으로 사면 연옥에서 받아야 하는 잠벌을 경감시켜 주기에 연옥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교황이 발행한 면벌부가 성경말씀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면벌부를 대신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합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1)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장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한 일을 행하여 엎드러졌음에도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을 반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불의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더 쉽게 깨닫게 하려고,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 고멜의 부정한 삶을 보여 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이 무엇인지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호세아 선지자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들의 불의함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밀 빠진 독과 같았습니다. 그 많은 메시지는 밀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즉 네 가지 밭의 비유는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에게 네 종류 마음의 밭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길가밭, 돌짜밭, 가시덤불이 무성한 밭, 그리고 옥토 이렇게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그 마음 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통해 수확

하는 수확량은 그 씨앗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씨앗이 떨어진 밭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고 알려줍니다. 반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옥토를 제외한 나머지 세 종류의 마음밭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100독을 했을지라도, 은혜로운 설교 수백 번을 들었을지라도, 마음이 옥토가 아니면 밭 빠진 독에 물 한 바가지 부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밭 빠진 독에 물을 한 바가지 붓든, 열 바가지 붓든, 아니 백 바가지를 부을지라도 빠진 독을 메우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2)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송아지로 포장된 제물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

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시 69:30-31)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송하는 게 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는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사탕발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제사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시 51:16-17)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찬송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십니다.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보다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음입니다. 진실된 마음이 담긴 행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돈으로 면벌부를 구입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황소보다, 수송아지보다, 돈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임한 진노를 떠나게 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를 이루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남들에게 없는 능력이 나에게만 있어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착각합니다. 5절입니다.

(5)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기서도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백합화같이 꽃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슬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슬은 건조한 땅의 풀과 나무에 꼭 필요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동안 이

슬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만일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이슬마저 내리지 않는다면, 가뭄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재난으로 간주할 정도라니 이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슬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6-7절입니다.

(6-7)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성경에 감람나무로 번역된 나무는 이스라엘의 올리브나무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가 등장합니다. 특히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감한 줄 확인하기 위해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때 비둘기가 물고 온 잎이 감람나무 잎, 즉 올리브나무 잎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나무였고, 고대 왕들이 레바논까지 와서 벌목해 갈 정도로 귀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이처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와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호와와의 도를 따라 걷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우파냐 좌파냐가 아니라 여호와 의 길을 걷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의인입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일로 인해 일희 일비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와의 도를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돌짜발, 길가발, 가시덤불밭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옥도로 갈아엎으려면 매일 매일 쟁기질을 해야 합니다. 밭 빠진 독에 물을 붓기 전에 먼저 메워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황소가 아니고, 수송아지가 아니고,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상적인 이유로 거절하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를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감사로 채우는 오늘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돌맹이와 가시덤불로 뒤덮인 척박한 땅에서 왜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인입니다. 옥토로 갈아엎지 않는 한 아무런 수확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분주한 세상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에 잇대어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람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쓰임 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2.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내 손에 들고 있는 면벌부는 무엇입니까?
3.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씀 앞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4.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절하고 얻은 대가가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5.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와의 도를 따라 걸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